추석선물 홍시 대신 망고?

metro®
메트로 2014년 8월 25일 월요일 제3042호 www.metroseoul.co.kr

비, 아이스 버킷 1억 기부

추석 제수용품 구입 재래시장 '북적' 이른 추석(9월 8일)을 2주일 앞둔 24일 오전 부산 부산진구 부전시장에 제수용품을 구입하러 나온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뉴시스

사회보험 비용 국민부담 '눈덩이'

고령화 따른 건강보험·국민연금 지출 매년 늘어
지난해 90조, 10년 후 2.5배 늘어 225조원 예상

국민이 부담하는 사회보험 비용이 눈덩이처럼 늘고 있다.

지난해 우리 국민이 부담한 사회보험비용은 9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에 따른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지출확대가 주원인으로 10년후인 2023년에는 224조9311억여원으로 예상된다.

24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사회보험비용 국민부담 현황 및 개선과제'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이 부담한 5대 사회보험비용은 88조7960억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 2012년 79조8574억원보다 11.2% 늘어난 것이다. 특히 지난 10년간 사회보험비용 국민부담이 연평균 9.9%씩 증가해 같은 기간 5.8%씩 증가한 명목GDP 증가율을 매년 4.1%p(포인트)씩 상회했다.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3년 4.2%에서 2013년 6.2%로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사회보험 비용은 건강보험이 39조319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국민연금 34조 8187억원 ▲고용보험 6조9635억원 ▲산재보험 5조4398억원 ▲장기요양보험 2조5421억원순이었다.

부담주체별로 사업장가입자인 기업과 근로자가 각각 45.2%, 36.6%씩을 부담했고, 정부 등 기타 주체의 부담은 18.2%를 차지했다. 지난 10년간 사회보험별 연평균 증가율은 건강보험(11.0%), 고용보험(10.4%), 국민연금(8.3%), 산재보험(8.2%) 순으로 나타났다. 뒤늦게 출범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08~2013년 사이 연평균 21.7%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OECD 중 증가속도 가장 빨라

우리나라의 GDP 대비 사회보장기금 비중은 2003년 4.7%에서 2012년 6.6%로 39.6% 증가해 같은 기간 OECD 평균 증가율(4.0%)의 10배에 달했다.

최근 10년간 총임금 대비 사회보험비용의 노사부담비중은 2003년 15.4%에서 18.5%로 3.1%p 늘어 4.5%p 증가한 일본에 이어 두번째로 크게 증가했다. 같은 기간 OECD 회원국 대부분이 감소(평균 1.1%p↓)한 것과는 비교된다.

경총은 "근로자와 기업부담이 국민 총 사회보험 비용의 대부분인 81.8%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노사의 사회보험비용 부담증가는 국민 전체의 비용을 늘리는 주요 요인"이라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2010년 11.0%로 OECD 국가중 30위였던 우리나라 노인인구 비율은 2050년엔 37.4% (1위)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인구 고령화에 따라 건강보험·국민연금을 중심으로 사회보험비용의 증가속도는 더욱 빨라질 가능성이 크다.

보고서는 2013년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지출은 2003년에 비해 각각 25조560억원, 11조1778억원씩 급증하며 사회보험비용 부담증가의 주원인으로 지목했다. 또 고용보험 기금을 통해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지급하는 등 불합리한 제도운영,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확대 등도 또 다른 부담증가 원인으로 꼽았다.

◆합리적 개선대책 급선무

경총은 사회보험별 연평균 증가율 추세가 지속되면 10년후인 2023년 국민부담은 224조9311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사회보험별로 ▲건강보험 110조8726억원 ▲국민연금 77조3952억원 ▲고용보험 16조9379억원 ▲산재보험 12조41억원 ▲장기요양보험 5조9631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경총은 "이런 추정이 나온 것은 우리 경제의 불확실한 성장동력, 저성장의 고착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사회보험비용의 가파른 증가세를 따라잡기 힘들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사회보험별 효율적인 지출프로그램 마련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간 불평등 개선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 제고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보수월액 상한 조정과 국민연금에 대한 합리적 부담·급여 구조 정착 ▲사회보장목표제 도입을 통한 적정 사회보장 수준과 합리적 국민부담 한도 설정 등을 개선과제로 제시했다. /김태균기자 ksgit@metroseoul.co.kr

동두천~연천 전철 연결한다

9월 말 착공… 2019년 개통

지하철 1호선 연장인 경원선 동두천~연천 전철화 사업이 9월 말 착공된다.

동두천역~연천역 20.8㎞에 2019년 개통을 목표로 3827억원이 투입된다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4일 밝혔다.

현재 동두천역이 종착역인 지하철 1호선이 연천역까지 연장되는 것. 동두천~소요산~초성리~전곡~연천 등 5개 역을 지난다. 이 가운데 초성리역은 이전되고 기존 한탄강역은 없어진다. 소요산·전곡·연천역은 개량된다. 우선 단선으로 건설해 평균 24분 배차 간격으로 하루 왕복 90회 운행할 계획이다. 연천군은 앞으로 복선 전철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애초 이 노선은 시베리아 횡단 철도(TSR) 등 대륙철도와의 연계까지 고려돼 지난해 9월 착공 예정이었으나 노선 변경과 역 신설을 요구하는 동두천시와의 갈등과 사업비 배정 문제 등으로 1년 늦어졌다. /김민준기자 mjkim@

더 알찬 정보와 주요 기사 및 상세 기사를 온라인 사이트(www.metroseoul.co.kr)에서 확인하세요

서울 요양시설도 화재 '취약'

407곳 점검 163건 위반

서울 시내 요양시설들도 화재에 취약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시 감사관은 지난 2월 24일부터 15일간 노인요양시설 407곳을 대상으로 소방안전 실태를 점검한 결과, 위법 사례 163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가장 많은 적발 사례는 소방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는데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완공검사 증명서를 교부한 경우였다.

성동구의 A 시설은 간이스프링클러의 방수압력이 기준에 미달, 화재안전기준을 위반해 시공했지만 담당 소방서는 이를 지적하지 못하고 완공을 증명했다. 용산구에 있는 B 시설도 스프링클러의 스위치와 배관 고정 행거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지만 완공 증명서가 교부됐다.

시는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직원 37명에게 훈계·주의 등의 경징계를 내렸다. /김민준기자

'독도, 한국령' 표기 日지도 첫 공개

1951년 대일평화조약 체결 당시 작성

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일본 영토를 정한 대일평화조약(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체결·비준할 때 일본 정부가 독도를 한국 영토로 표기해 사용한 지도가 처음으로 공개됐다.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는 독도연구가 정태만(59) 씨가 가지고 있는 '일본영역참고도' 스캔 파일을 확보해 24일 공개했다.

독도 주변에 그려진 반원.

일본영역참고도는 일본이 연합국과 대일평화조약을 체결하기 한 달 전인 1951년 8월 해상보안청 수로부가 작성한 지도로, 같은 해 10월 일본 국회가 조약을 비준할 때 부속지도로 제출됐다.

일부 우익은 이 지도가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고, 일본 측 연구자들은 지금껏 이 지도를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정씨가 공개한 지도는 독도 주변에 반원을 그려 일본 영토에서 명확히 제외하고 있다.

'독도는 일본 땅'이란 내용을 담은 방위백서를 발간하는 등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해 온 일본 아베 정부의 행보가 애초 억지였다는 점이 다시 한번 명백해졌다. /김민준기자

세월호 해법 못찾은 답답한 야 표정 박원순 서울시장(오른쪽부터),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윤장현 광주시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시도지사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세월호특별법 해법을 찾기 위한 광역단체장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분리국감·정기국회도 '파행'

세월호법에 발목… 여 "야, 3자협의체 구성" 제안 거절

세월호특별법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정기국회까지 파행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단독으로 소집된 8월 임시국회는 22일부터 시작됐지만 여야는 아직 의사일정을 잡지 못한 채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25일 의원총회를 열어 국감 분리실시를 위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민생법안 등을 세월호법과 별도로 처리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지만 당내에선 부정적인 기류가 강하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총에서 최대한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며 "세월호법이 최우선이라는 입장은 아직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대로 '처리불가' 방침이 확정되면 임시국회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것은 물론 내달 1일 소집되는 정기국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여야는 25일 본회의를 열어 2013회계연도 결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현재 분위기로는 이달 말 시한인 결산안 처리가 법정기한을 넘길 가능성이 커 보인다. 또 올해 처음 1차(8월26일~9월4일)와 2차(10월1일~10월10일)로 나눠 실시하기로 한 분리국감 시행도 어려워졌다.

이와 관련,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24일 세월호법 해법을 찾기 위한 방안으로 새누리당에 여야와 유가족이 참여하는 3자협의체 구성을 공식 제안했지만, 여당은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민준기자 mjkim@metroseoul.co.kr

과거로 시간여행 24일 오후 서울 청계천 8가 판잣집 체험장을 찾은 시민들이 1960~70년대 교복을 입고 '셀카'를 찍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 척결지시 26건중 이행 3건

국정관리 무능… 법안처리 못한 여야도 문제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넉달이 지났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담화 이후 이행된 후속조치가 11%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은 24일 국무조정실 자료를 토대로 "국가대개조·적폐해소·관피아 척결 방안으로 발표한 5개 분야의 26개 과제 중 단 3건만 완료 상태이고 나머지는 진행이 지지부진하거나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나마 완료된 3건의 과제도 공직 순환보직제 개선, 공모제 관련 중앙선발시험위 설치, 전문성을 지닌 공무원 우대 방안 도입 등으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후속 조치는 답보상태"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국무조정실은 14건을 6월 말까지 마무리하기로 스스로 정한 기한조차 지키지 못했다"며 "이는 정부의 무능한 국정관리 능력과 국무조정실의 역할 부재에서 기인한 것으로 정부의 국정운영·관리 능력에 심각한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세월호 참사 관련 후속조치 이행이 늦어지는 것은 몇달 째 단 한 건의 법안처리조차 못한 채 여야 간 날선 대치만 이어가고 있는 정치권의 책임도 크다는 지적이다. /김민준기자

성범죄 전력 교사 절반 교단에

지난 5년간 성범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초·중·고교 교사가 240명에 달했고, 이중 절반 가량인 115명은 버젓이 현직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이 24일 공개한 '성범죄 관련 비위교사 현황' 교육부 자료를 보면 200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5년여간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교사는 총 108명, 일반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는 총 132명으로 파악됐다.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교사의 성범죄가 2009년 9건에서 2010년 20건, 2013년에는 29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전력 교사 108명 중 33명(30.5%)이 현재 재직 중이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 132명 중 현재 재직 중인 교사는 82명(62.1%)에 달했다. /김민준기자

9월10일 추석연휴 '대체휴일'

관공서·대기업 첫 적용

9월 10일은 추석 연휴(9월 7~9일)의 첫날인 7일이 일요일과 겹쳐 지난해 대체휴일제 도입 후 실제 시행되는 첫 대체 휴일이다. 그러나 제도 시행이 처음인데다 '검은 날'로 표시된 달력이 많아 대체휴일제 시행 사실 자체를 모르는 직장인과 자영업자가 적지 않다.

대체휴일제는 지난해 11월 시행된 새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으로 도입됐다. 설·추석 연휴가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과 겹치면 그다음 첫 번째 평일이 공휴일로 지정된다.

달력에는 9월 10일에 '대체 휴일'이라는 문구와 함께 '빨간 날'로 표시된다. 그러나 새 대통령령 시행 이전에 제작된 달력에는 이 날이 아무런 표시 없이 평일로 돼 있다.

대체휴일제의 근거 법령은 엄밀히 말해 관공서의 휴일을 규정한 것일 뿐, 민간기업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의무사항은 아니다. 민간기업은 관공서 휴일을 참고해 노사협의를 거쳐 휴일을 정해야 한다. 공기업과 대기업은 대체휴일제를 적용해 10일에 대체로 쉬지만 기업의 사정이나 노사협의에 따라 쉬지 않을 수도 있다. /김민준기자

찬반 논란에 학교 '혼란' 가중

교총 "즉흥적 정책" … 이재정 교육감 "방과 전 프로그램 활용"

issue&view
초·중·고 9시 등교

/윤다혜기자 ydh@metroseoul.co.kr

'9시 등교' 정책을 놓고 경기도교육청과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의 갈등이 심각하다. 학부모들 사이에도 찬반이 갈려 일선학교 현장은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2학기인 다음달부터 경기도내 초·중·고교에서 9시 등교를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의정부여중은 25일 처음으로 9시 등교를 실시한다.

'9시 등교'는 학생들에게 아침밥과 수면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이다. 9시 등교가 실시되면 초·중·고교는 현재 등교시간보다 1시간에서 30분가량 늦춰지게 된다. 등교시간의 결정 권한을 갖고 있는 학교장은 이 교육감의 입장이 강경해 반대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학생들은 "잠을 충분히 잘 수 있고, 가족과 아침도 먹을 수 있다"며 대부분 환영했다.

그러나 학부모들 사이 이를 우려하는 시각이 많다. 특히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들의 등교를 직접 챙기지 못하게 돼 걱정"이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교총은 "학교 현장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정책"이라며 중단을 거듭 촉구했다. 또 "교육부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위반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구하고 법률 자문을 통해 교육감의 권한 남용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며 강경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이 교육감은 일찍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도서관과 교실을 활용해 독서와 음악감상·동아리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시하며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혼자인 친구를 위한 장난감 만들기 24일 오후 서울 신당동 충무아트홀 체육관에서 '모아장난감' 만들기 행사가 열리고 있다. 프렌드아시아가 부모가 없는 아이들에게 장난감을 선물하자는 취지로 실시한 이 장난감 만들기 행사는 참여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단체 누구나 함께할 수 있다. /연합뉴스

서울대생 57% "수능 대비 사교육"

서울대생 3명 중 2명가량은 입학 전 대학수학능력시험 준비를 위해 사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대 입학본부는 2013학년도 수시모집 합격생 2680명(응답률 56.5%)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66%가 수능 대비 사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고 24일 밝혔다.

수능 외에 내신과 심층면접을 위한 사교육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각각 42%, 논술고사는 32%, 외국어 공인시험은 24%, 일반 면접은 20%, 학업 관련 교외 수상은 12%였다. 실기고사를 위해 사교육을 받은 예체능계열 학생은 84%에 달했다. /윤다혜기자

울산 앞바다 참돌고래떼 발견 24일 오전 11시 50분부터 20여분간 울산시 남구가 운영하는 고래바다여행선이 울산 장생포항 인근 앞바다에서 참돌고래떼 500여마리를 발견했다. /울산시 제공

밤낮없는 대리운전 스팸

3800만건 발송 일당 검거

불법 유통된 개인정보를 이용해 천문학적 건수의 대리운전 광고 스팸메시지를 보낸 일당이 검찰에 붙잡혔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박모(35)·이모(42)·홍모(40)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수도권에서 대리운전업체를 운영하는 이들은 2009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다른 대리운전업체에서 유출된 600만명의 대리운전 이용 정보를 개인정보 판매상 등으로부터 모두 300만원을 주고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법인명의의 휴대전화 수백개를 사용해 약 3800만건의 대리운전 스팸 문자를 무단으로 보낸 혐의다. /윤다혜기자

'새만금 어선사고'도 예고된 人災

사업단 수문 운영 부실

군산 옥도면 신시도리 배수갑문 바로 앞 해상에서 전어잡이 어선 태양호가 전복돼 실종자가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의 배수갑문 개폐 과정의 문제점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태양호가 사고 당시를 전후로 배수갑문 인근에 있었음에도 배수갑문 상황실에서 취한 조치는 접근금지 안내방송과 경고음을 내보낸 것 뿐이었다.

해수측과 내측을 합해 모두 20개의 수문이 7m높이까지 개문되는 시간이 1시간여인 점을 감안하면, 태양호의 사고 당일 이 안내방송이 7분 간격으로 모두 8차례(24회) 정도가 내보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상황실 근무자 2명 모두가 수문 개문이 모두 완료된 22일 오후 5시47분 이후부터 사고 발생 직후까지 저녁식사를 핑계로 상황실을 비워두는 바람에 큰 사고를 불렀다.

사업단 측은 사고가 발생한 지 사흘째가 된 시점까지도 인터넷에 사전공지 흔적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어 궁색한 변명임이 여실히 드러나는 등 새만금사업단의 총체적 부실이 비난을 사고 있다. /윤다혜기자

이혼소장 '객관식'으로

비방 대신 양육 등 기술

배우자에 대한 비방·모독이 무분별하게 기재되던 이혼 소장이 다음달부터 '객관식' 문형으로 확 바뀐다.

서울가정법원은 다음달 1일부터 새 가사 소장 모델을 시범 도입한다고 24일 밝혔다. 새 소장은 혼인 파탄 원인은 주관식이 아닌 유형별 객관식으로 표시하도록 해 감정이 과잉된 언어의 사용을 막고, 친권자·양육자 지정 등에 관한 의견을 보다 자세히 기술하도록 개선했다.

이혼의 계기가 된 결정적 사정을 ▲배우자가 아닌 자와 동거·출산 ▲배우자 아닌 자와 성관계 ▲기타 부정행위 ▲장기간 별거 ▲가출 ▲잦은 외박 중에서 3~4개를 고르도록 하는 식이다. 법원은 제시된 유형으로만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 내용은 '판사 및 조정위원에게 전달되기 원하는 사항'란에 서술할 수 있도록 했다. /윤다혜기자

우체국 보험약관, 폰으로

우정사업본부 서울지방우정청은 스마트폰과 태블릿PC를 이용한 보험약관 제공서비스를 1월 시범운영을 거쳐 이달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에 따라 고객은 우체국 보험 가입 즉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로 약관을 제공받고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게 됐다.

희망자는 계약 시 신청서를 작성하고,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에서 우체국 예금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우체국 스마트뱅킹' 앱을 설치하면 된다.

조의금 가로챈 여단장, 수사자료 공개 패소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해 자살한 병사의 조의금을 가로채 공분을 샀던 육군의 한 여단장이 수사 자료로 활용되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내용을 공개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허가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은 A씨가 자신이 연루된 "조의금 횡령사건에 대한 조사 내용을 공개하라"며 권익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사실상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권익위의 조사내용이 군 검찰 수사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세부 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A씨는 2011년 12월 경기도의 한 육군 여단에서 자살한 김모 일병의 유족에게 전달해야 할 조의금 가운데 160여 만원을 빼돌려 헌병대 등에 격려금으로 나눠주고 회식비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윤다혜기자

외상 스트레스 근로자 지원

안전보건공단은 산업재해를 목격한 근로자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을 때 직장 복귀 지원을 위한 '근로자건강센터'를 운영한다.

센터에는 지역 내에 기반을 둔 병원의 전문의와 간호사, 작업환경전문가, 상담심리 전문가 등이 상주한다. 직무스트레스와 근무환경에 대한 상담부터 건강진단 결과 사후관리, 업무적합성 평가, 근골격계질환·뇌심혈관질환 예방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상하이에 '미스터 빈' 등장

metro HongKong

중국 배우와 코믹춤

'미스터 빈'이라는 캐릭터로 유명한 영국 코미디배우 로완 앳킨슨이 중국을 처음으로 방문해 많은 주목을 받았다.

로완 앳킨슨은 TV 광고 촬영을 위해 최근 상하이를 찾았다. 홍콩과 마카오는 방문한 적이 있지만 대륙은 첫 방문이다. 그가 도착한 공항에는 많은 취재진이 몰려 미스터 빈의 인기를 실감하게 했다.

그는 중국 광장이나 공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집단춤인 광장무를 배경으로 춤 대결을 하는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다. 중국 전통 의상을 입은 배우들이 가득해 중국적인 색채가 물씬 풍기는 광고였다.

음악이 흘러나오면 엄숙한 분위기의 멋쟁이 영국 신사는 순식간에 눈을 부릅뜨고 혀를 내미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변신했다. 광장에서 구경하던 시민은 미스터 빈의 '전매특허' 표정을 보고 연신 사진을 찍어댔다.

광고 촬영을 마치고 그는 "특별한 경험이었다. 영국에는 이렇게 공원이나 광장에서 함께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문화가 없다. 광장무는 매우 건강하고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코미디 연기는 계속 할 것이고 미스터 빈에도 다시 출연할 계획"이라며 "몸이 건강할 때까지는 계속 이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정리=조선미기자

이틀간 경찰서에 637번 전화

metro France

20대 여성 징역 6개월

프랑스에서 이틀간 경찰서에 637번 전화를 건 한 여성이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올해 24세인 '제니퍼'는 같은 범행으로 이미 11번이나 법정에 선 경험이 있다. 그를 조사한 정신의학 전문가는 "심각한 성격 결함이 있으며 높은 불안감과 우울 증세를 보인다. 분별력도 떨어지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모드 발레로 기자 ·정리=정주리 인턴기자

美, IS 군사작전 강화

의회승인 방안 검토… 오바마 '느긋한 휴가' 비난 여론

미국이 이라크 수니파 반군 '이슬람국가'(IS)에 대한 전투 옵션과 군사 작전에 대한 미 의회의 승인을 받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3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은 미국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새로운 테러 전략에 따라 IS 군사 작전에 대한 의회 승인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의회의 승인을 받을 경우 미국 정부는 IS가 활동 중인 이라크·시리아 내 군사 작전을 무기한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앞서 미 의회는 2001년 알카에다 조직과 관련 세력, 2002년 사담 후세인 정권 아래서 이라크에 대해 군사력 사용을 승인한 바 있다.

현재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10월 초까지 두 달 동안 유효한 이라크 공습을 승인한 상태다. 그러나 IS가 미국인 기자 제임스 폴리를 참수한 뒤 IS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히며 군사 작전을 확대할 뜻을 내비쳤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휴가지인 매사추세츠주 마서스 비니어드에서 백악관 관계자와 골프를 치던 도중 손을 잡으며 즐거워 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여름 휴가와 골프를 즐겨 구설에 올랐다.

미주리주 10대 흑인 소년 총격 사망, IS의 미국인 기자 살해, 서아프리카 지역의 에볼라 창궐 등 굵직한 사건·사고가 대통령의 휴가 중 발생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곧바로 휴가지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기자 회견을 했다. 그러나 그가 휴가지에서 업무를 처리한 직후 골프장으로 발길을 옮기자 비난 여론이 쏟아졌다. 대통령이 위중한 현안 속에서 지나치게 느긋한 휴가를 보내고 있다는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에도 시리아 군사 개입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성명을 발표한 뒤 곧바로 골프장을 찾아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조선미기자 seonmi@metroseoul.co.kr

트위터는 퍼거슨, 페북은 아이스 버킷

SNS 호응 이슈 달라

페이스북 이용자는 '아이스 버킷 챌린지', 트위터 이용자는 '퍼거슨 사태'에 관심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페이스북은 친목공간으로 트위터는 사회적 큰 이슈를 전하는 속보 플랫폼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23일(현지시간) 디지털 미디어·마케팅·광고 전문매체 '디지데이'는 SNS 분석 업체인 심플리치 등의 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심플리치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일 이후 '퍼거슨'이나 '마이클 브라운'(퍼거슨에서 지난 9일 백인 경찰관의 총에 맞아 숨진 18세 흑인 소년)에 관한 기사는 페이스북에서 기사 건당 평균 257회 언급됐다. 좋아요·공유·댓글 등 반응은 기사 건당 평균 518회였다.

그런데 같은 기간 페이스북에서 '아이스 버킷 챌린지'에 관한 기사는 건당 평균 2107회 언급됐다. 좋아요·공유·댓글 등 반응은 기사 건당 평균 796회로 훨씬 반향이 컸다.

기사 건수로 따지면 퍼거슨 사태 관련 기사가 1만3557건, 아이스 버킷 챌린지 관련 기사가 1663건으로 전자가 후자를 압도했다. 그러나 페이스북 사용자들이 기사를 언급한 경우는 전자(348만79회)보다 후자(350만3395회)가 오히려 더 많았다.

/이국명기자 kmlee@

안전을 더한 여행
건전을 더한 여행

올해도 역시 우수여행상품

인터넷 검색창
여행정보센터

해외여행

내일투어 02)6262-5079 파타야 All in One 금까기, 제이파크 아일랜드 금까기, 말레이시아 랑카위 포시즌 금까기 **노랑풍선 02-2022-2591** [실속]미얀마 양곤/시리암+내셔널빌리지 5일, [보라카이] 보라카이 가든리조트+호핑투어 5일, 국적기[노팁/전일특급+현지항공이동]터키 9일[KE] **레드캡투어 02)2001-4720** 프리미엄 오감만족 터키 완전일주 7박 9일 **롯데관광개발 02)2075-3015** 프라하와 비엔나 그 천년의 향기 동유럽 9일, 로맨틱 아일랜드 오키나와 힐링투어 4일, [패키지]팁포함+특급호텔+국내선 2회 터키항공일주 8일 **여행박사 070)7017-2222** 프리미엄 효도여행 孝 **온누리투어 02)568-6655** 릴렉스 in 티니안 경비행기+ATV+BBQ 5일, 홈쇼핑大히트 사이판월드리조트+선셋 BBQ 4일, 특급호텔+항공 이동 2회 터키일주 8일 **인터파크투어 02)3479-4266** [오전출발]보라카이/전신마사지 5일, 라까멜라리조트-신관, 베트남(다낭/호이안)+캄보디아(앙코르왓) 6일 **투어이천 02)2021-2088** [동화 속 마을]다뉴브유람선+할슈타트+판도르프아울렛 동유럽 6개국 9일, [공중수도원 메테오라와 밸리댄스]그리스+터키일주 9일, [I'M a 리얼힐링] 방콕/파타야+꼬삭섬 요트투어+힐링마사지 3회 **하나투어 02)2127-1259** 앙코르왓 5일 1$의 기적 나눔여행, 푸껫 최대 규모 리조트 초특급 힐튼(디럭스 가든룸), [패키지][마침표]"융프라우와 베니스+나폼소" 4개국 10일 **한진관광 02)726-5675** 아드리아해의 진주 발칸 3국 9일, 대자연의 향연 북유럽(노/덴/스/핀) 9일, [아들아~ 나! 짱이지?]나트랑 빈펄 리조트 골드힐뷰 5일 **혜초여행사 02)6263-2000** 동남아시아 최고봉(4095.2m)Mt. 키나바루 트레킹 5일, 유럽알프스 3대 미봉 트레킹 11일, 캐나다 로키 트레킹+나이아가라 9일 **KRT여행사 02)2124-5685** 디럭스+노팁+스타팸 투어 사이판 PIC 골드 5일(오후), 달리는 A380! "VIP리무진/특급 3박/직항" 터키일주 9일, [시크릿]크로아티아 아드리아 4국(크/슬/몬/알) 9일

배낭여행상품

가야여행사 02)554-0251[프리팩]Luxury Resort PACK **내일투어 02)6262-5079** 유럽 단체배낭 칸타빌레, 유럽 호텔팩 Free&Easy 15, 유럽 호텔팩 스크린 **에스비케이투어 070-8672-2523** 배낭의 자격 22일 **에스제이알에듀테인먼트 070-8671-5703** SJR유럽 동행 **하나투어 02)2127-1259** [단체배낭]유럽 알레그로 9개국 22일

허니문상품

가야여행사 02-554-0251 스위스 일주 - Romantic Route 7일, 후아힌 Hilton Resort&Spa 5일, 후아힌 Hilton Resort& Pool VIlla 연계 **내일투어 02)6262-5079** 케세이패시픽항공 몰디브 타지엑조티카 리조트 허니문, 태국 푸켓 반얀트리 리조트 허니문, 하와이 트럼프 허니문 **롯데관광개발 02)2075-3015** 풀빌라 4박 무료업글 리조트 2박+디와 풀빌라 2박 6일 **하나투어 02)2127-1259** 푸껫 6일 - 반얀트리 풀빌라, [베이비문+태교여행]괌 쉐라톤 5일, [관광+자유] 하와이 쉐라톤 와이키키 6일 **한진관광 02)726-5675** [대한항공 전세기] 나트랑 빈펄 럭셔리 풀빌라 허니문 6일

국내여행

동백여행사 02)2233-3500 통영 섬여행(아름다운 자생꽃섬 지심도&장사도 까멜리아) **뭉치마이스 064)724-6887** 제주농어촌 밭담투어, 제주 백패킹 투어, 제주올레 둘레 트레킹 투어 **미래여행사 054)272-8001** 신비의 울릉도&민족의 섬 독도 탐방 **센타투어 02)730-7311**횡성 러브투어 **솔항공여행사 02)2279-5959** 천년고도 경주와 청도 와 인터널, 힐링캠프 군위와 정신문화의 거점 안동 **아름여행사 070)4667-0280** 백두대간을 질주하자! 한국의 오지를 관통하는 백두대간 협곡열차, 잊혀진 길을 찾아, 숨겨진 비경을 찾아가는 괴산 산막이 옛길 **월드투어네트워크 063)288-4567** JTV 백두대간 협곡 관광열차 1박2일 **웹투어 02-2222-2677** [내륙]충북일주(단양팔경/제천/수안보온천/산막이옛길)2일 **이레일투어 02)323-7805** 강원도 구석구석 디너크루즈 1박2일, 남이섬 강촌레일바이크 당일 기차여행, 정선레일바이크 바다열차 1박2일 **케이에어투어스 02)733-0254** 토요체험학습 미래의 일꾼들과 떠나는 기업탐방여행 **코레일관광개발 02)2084-5742** 레저스포츠 관광열차, 레일크루즈 해랑열차 씨밀레 1박2일, 레일크루즈 해랑열차 아우라 2박3일 **테마캠프여행사 02)735-8142** 내 생애 꼭 한번 가봐야 할 보물섬 남해 비경 1박 2일, 천국의 섬 외도&동양의 나폴리 통영 1박2일(한국의 몽마르트 동피랑마을) **토비스투어 02)3412-5352** 소수서원 2박3일 **투어이천 02-2021-2088** 우리강산 푸르게푸르게! 우리정신 강하게강하게!, [This is Korea!]한려수도 통영/남해, 섬진강 줄기따라, 한려수도 해안따라 남도 환타지아 **하나투어 02)2127-1259** [제주도]섬속의 島 우도와 제주일주 3일, 울릉도 2박3일 묵호항 이색숙소캐라반(캠핑카), [제주도]효도관광/노팁! 노옵션 3일 **하나투어ITC 02)398-6571** [내나라여행] 동부권일주3박4일, [내나라여행] 서부권 일주 3박4일, [내나라여행] 전국일주 6박7일 **한국드림관광 02)1577-8121** 구석구석 울릉도·독도 옛길투어, 강원도 대표도시 동해/삼척 속속 파헤치기, 신비의 섬 울릉도·독도 알뜰투어 **한라산가자투어 064)749-2010** 제주 완전정복(비양도+전통 테우체험+우도), 신(新) 제주 완전정복(차귀도+허브족욕체험+전통 테우체험), KAL명품 힐링투어 **한진관광 02)726-5675** 新 한국기행 전국일주 7일 **현대관광 02)751-4585** 역사가 있는 경북여행 - 천년고찰 영주부석사와 선비촌&예천 회룡포와 문경새재 및 철로자전거체험, 이색체험여행 춘천물레길 카누체험과 양구 두타연 생태여행, 천년의 숲 함양상림&오도재&칠선 계곡 서암정사 무주태권도원&와인체험여행 **홍익여행사 02)717-1002** 바래길/독일마을/최참판댁 2일 **DMZ관광 02)706-4851** 승전전망대 DMZ 철책선 걷기와 역사문화탐방

음식여행

동백여행사 02)2233-3500 맛따라! 멋따라! 남도 맛기행, 맛따라! 멋따라! 경북 맛기행! **롯데관광개발 02)2075-3015** [경북시티투어]붉은 대게먹고, 한우먹고, 백암온천 2일, [맛있는여행]대구 10味와 고령 대가야 진찬 별미여행 2일, [전남시티투어]영광굴비 먹고, 해수온천하고, 노을길걷기 2일 **이레일투어 02)323-7805** 청산도 남도맛집 1박 2일 **웹투어 02)2222-2677** [내륙]남도밥상! 곡성/순천/여수오동도 동백꽃/벌교 태백산맥 2일 **하나투어 02)2127-1259** 동해안 7번국도 따라가는 온천 미식여행! 울진/동해/강릉 2일 **하나리더투어 1588-1272** 나섬치즈&피자체험마을 피자, 치즈만들기/쁘띠프랑스 힐링문화체험 **한라산가자투어 064)749-2010** 올레 제주 맛과 멋(노팁/노옵션+전일정 별미식사+허브 족욕체험)

KOREA
우수여행상품
Quality Certification
한국여행업협회
2014.7~2015.12

한국여행업협회가 엄선한
'우수여행상품'으로
건전하고 안전한 여행 하세요!

여행정보센터 Tour Information Center	등록된 여행사인지 여행정보센터에서 **확인하고**
우수여행상품 Quality Certification	우수여행상품으로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하고**
여행불편처리센터 Tourist Complaint Center	여행중 불편사항은 여행불편처리센터에서 **해결하고**

우수여행상품
우수여행상품인증제도는 '건전여행' 정착과 여행상품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 제도는 전국 여행사의 신청상품을 대상으로 전문평가위원회(소비자관련단체, 유관기관, 학계, 여행업체 등 30명)의 공정한 심사 · 평가를 통하여 선정되어집니다.

여행정보센터(www.tourinfo.or.kr)에서 우수여행상품을 찾아보세요.

주관

후원

market index <22일>

코스피
2056.70
(+12.49)

코스닥
566.35
(+3.83)

금리(국고채 3년)
2.58
(변동없음)

환율(원·달러)
1018.00
(–4.50)

브랜드 팬틴, 샘플링 행사 23일 서울 광진구 워커힐호텔 야외수영장 리버파크에서 열린 '2014 비키니 파티-수퍼 세터데이 파티'에서 헤어케어 브랜드 팬틴이 참가자들에게 이색적인 샘플링 행사를 벌이고 있다. /뉴시스

개인정보 불법유통 점검

정부가 개인정보 불법 유통·침해에 대한 집중 점검과 단속 강화에 나선다. 24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카드 3사 고객정보 유출사고를 계기로 정부합동수사단을 구성하고 불법 유통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전개했다.

그 결과 21일 전남지방경찰청에서 약 2억2000만건 규모의 개인정보 침해사범을 적발했다. 향후 정부는 불법 개인정보를 활용한 대출알선, 보이스피싱 등 신종 금융사기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불법 유통 게시물 등에 대한 정보공유 및 협업 체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재영기자 ljy0403@

로또복권 제612회

1등 당첨번호						2등보너스숫자
6	9	18	19	25	33	40

등위	당첨방법	당첨금(원)
1등	6개 숫자 일치	1,181,705,250
2등	5개 숫자 + 2등 보너스 숫자	36,719,655
3등	5개 숫자 일치	1,181,921
4등	4개 숫자 일치	50,000
5등	3개 숫자 일치	5,000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경희궁길9(신문로2가)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인쇄인 남 궁 호
사장·편집인 김 종 학
편집국장 조 민 호
광고문의 02)721-9851,3
독자센터 02)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206

수익 악화로 영업점 잇단 축소

은행권, 전년比 95개↓…하반기도 빨간 불

저금리 시대의 장기화로 은행권에 점포 정리 바람이 확산되고 있다.

수익성 악화를 겪고 있는 국내 은행들이 영업점 축소를 통해 비용 절감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금융당국도 은행들의 경영 효율성을 위해 적자 점포를 정리하라고 독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온라인 거래 활성화 역시 시중은행들이 영업점 수를 축소하는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신한·하나은행 등 7개 주요 은행의 올 1분기말 영업점 수는 모두 5832개로, 지난해말 5927개보다 95개 감소했다.

신한은행은 올 1분기에 영업점 수를 대폭 줄였다. 지난해 4분기 944개의 영업점 수가 올 1분기에는 894개로 감소했다.

신한은행 측은 "지난 1월 말 금융환경과 고객들의 금융패턴을 반영해 동일지역 내 인접 점포 등 총 49개를 통폐합하는 영업점 효율화 전략을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영업점 수 축소는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 적극적인 점포 구조조정에 나선 덕분이다. 다만 지방에서는 되도록 점포 수를 유지해 5대 광역시에서는 9개,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에서는 2개 점포만 통·폐합됐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점포 수는 줄지만 직장인·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고객별 맞춤형 점포를 늘리는 등 수요에 맞게 점포의 이전과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나은행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하나은행은 지난해부터 영업점 수를 축소하고 있다. 하나은행의 영업점 수는 지난해 1분기말 총 649개였으나, 올 1분기 기준 625개로 줄었다. 하나은행은 경영 상황에 따라 1~2개 영업점을 추가 축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외환은행도 지난해 2분기부터 분기별로 영업점을 정리해 총 357개에서 350개로 축소했다.

이외에도 국민은행은 올해 초 55개 점포를 통폐합시키면서 올 1분기 기준 1151개의 영업점을 운영하고 있다.

은행업계 관계자는 "은행들이 지난해부터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영업점을 축소하고 있다"면서 "올 하반기 경영에도 비상등이 켜지면서 은행권의 영업점 추가 축소는 계속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김민지기자 minji@metroseoul.co.kr

2014 웨어러블 X 페어 24일 오후 서울 대학로 홍대아트센터에서 열린 '2014 웨어러블 X 페어'에서 어린이들이 걸음 속도와 위험 상황 등을 음성으로 알려주는 웨어러블 신발 '토킹힐'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부동산 규제완화…'강남권' 최대 수혜

시행 한 달…서초구 아파트 매매가 0.51%↑

지난달 24일 부동산 규제완화 방침이 담긴 하반기경제정책 발표 이후 지난 한 달간 서울 강남권의 아파트가 가장 큰 수혜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부동산114의 아파트 매매가격 분석에 따르면 총부채상환비율(DTI)·주택담보대출비율(LTV), 재건축 안전진단 ·소형주택의 무비율 등이 담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 후 한달 동안 서울 아파트값은 0.17%, 경기도는 0.08%, 인천은 0.12%(수도권 전체 평균 0.13%)가 각각 올랐다.

매매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서초구로 한달 새 0.51% 급등했다. 이어 강남구가 0.38%, 강동구가 0.36%로 수도권 전체 시·구 전체에서 범 강남권의 아파트들이 나란히 상승률 1~3위를 기록했다.

이들 3개 구는 6억원 초과 아파트와 정부정책에 민감한 재건축 단지가 많아 LTV·DTI와 안전진단 등 규제완화 효과를 크게 본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서울지역 재건축 아파트는 지난 한 달간 0.5% 상승해 일반아파트 상승률(0.11%)을 압도했다.

서초구의 경우 반포 주공, 강남구는 개포 주공, 강동구는 둔촌 주공이 대표적인 재건축 추진 단지로, 이들 아파트의 매매값은 정부의 DTI 등 규제완화 방침이 공개된 후 2000만~5000만원 이상 상승했다.

부동산114 함영진 리서치센터장은 "이 달부터 수도권 6억원 이하 아파트는 LTV가 종전 60%에서 70%로 10%포인트 증가했지만 6억원 초과 아파트는 50%에서 70%로 20%포인트 확대돼 대출액도 그만큼 늘게 됐다"며 "재건축 안전진단, 소형주택의무비율 기준 완화 등 재건축 호재까지 이어지면서 강남권 아파트의 시세(호가)가 상대적으로 많이 오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비해 '강남 3구'의 한 축인 송파구의 상승률은 0.13%로 서울 전체 평균에 못 미쳤다. 송파구는 잠실 주공5단지 등 재건축 단지가 규제 완화의 기대감으로 3000만~4000만원가량 올랐지만 '싱크홀' 악재가 터지면서 다른 아파트들의 가격 상승폭이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김두탁기자 kimdt@

美 게임회사 국내 문화재 보호 앞장

미국 게임 회사가 국내 문화재 보호에 투입한 돈이 18억4000만원을 넘어섰다.

국내 1위 온라인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롤)를 서비스 중인 라이엇 게임즈가 한국 문화유산 보호와 지지를 향한 행보에 박차를 가한다.

라이엇은 22일 서울 덕수궁 중명전에서 문화재청과 함께 '후원협약식'을 진행했다.

라이엇은 팝스타 아리의 초기 6개월간의 판매금액 전액에 자사의 기부금을 더해 핵심 프로젝트에만 총 7억4000만원을 투입하는 대규모의 후원 계획을 공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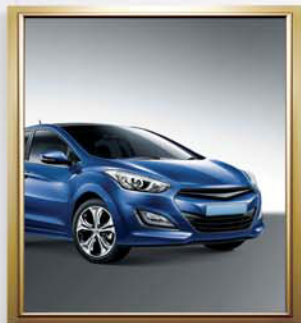
후원금은 국내외 문화유산의 가치 보호와 제자리 찾기를 위한 '국외 문화유산 반환' '국내 문화유산 구입' '조선 왕릉 보호지원' 등에 쓰인다. 또 청소년을 비롯한 국민 모두가 우리 문화유적지 곳곳을 살펴볼 수 있는 프로그램 5편을 준비하는 '문화유적지 관련 방송 콘텐츠 제작 지원(EBS)', 청소년 역사 의식 함양을 위해 진행되는 '청소년 문화유산 교육' 등에 사용될 계획이다. /박성훈기자 zen@

이승현 라이엇 게임즈 대표와 나선화 문화재청장이 덕수궁 중명전에서 '후원협약식'을 진행하며 협약서를 교환하고 있다. /라이엇 게임즈 제공

미래를 함께 하는 따뜻한 금융 신한금융그룹

준법감시인 사전심사필 제2013-2-134호
2014. 3. 14 현재

차 구입 예정 고객님?

새 차에서 중고차까지 차 살 땐…
가장 먼저 신한은행과 상의하십시오

신차구입

중고차구입

개인택시

경/소형화물

할부금융전환

영업용차량

신한 S-MORE MyCar대출
신규자동차 구매 예정인 소득증빙이 가능한 고객

신한 MyCar신차대환대출
타 금융기관에서 취급된 신차할부금융을 대환하고자 하는 고객으로 대출실행일 현재 본인 최초 차량등록일로부터 24개월 이내인 고객

신한 MyCar중고차대출
중고 자동차매매회사를 통해 중고차 구매 예정인 소득증빙이 가능한 고객

신한 MyCar중고차대환대출
타 금융기관에서 취급된 중고차할부금융을 대환하고자 하는 고객으로 대출실행일 현재 최초 차량등록일로부터 8년이내, 본인 소유권이전일로부터 24개월 이내인 고객

바로 전화주세요!

MyCar 상담센터 1577-4664

상담가능시간 09:00~18:00 휴무일 제외, 유선으로 대출한도 확인 가능 / **홈페이지** http://mycar.shinhan.com

※ 대출 약정에 따른 부대비용(인지세)중 50%는 고객 부담이며, 대출상환금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금융기관 신용관리대상자 등 여신 부적격자에 대하여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 만기 후에 대출금을 갚지 못한 경우에는 여신거래 약정에서 정한 기간별 연체이율이 적용되며, 신용정보관리대상 등록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별도의 법적계약이 없는 한 신한은행은 신한금융그룹내 타계열사의 채무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상품설명서 참조 또는 가까운 영업점 직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동행 신한은행

신한금융그룹 | 신한카드 | 신한금융투자 | 신한생명 | 신한 BNP 파리바 자산운용 | 신한캐피탈 | 제주은행 | 신한저축은행 | 신한데이타시스템 | 신한아이타스 | 신한신용정보 | 신한PE투자자문

"기업가의 눈으로 봐야 제대로 보인다"

인터뷰 – 슈퍼개미 박영옥 스마트인컴 대표

"주인으로서 세상을 바라보아라."

1000억원대 자산을 운용하는 거액자산가이자 '슈퍼개미'로 잘 알려진 박영옥 스마트인컴 대표가 이렇게 말했다. 지난 22일 유진투자증권에서 열린 투자강연회에서 그는 "이는 곧 기업가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제대로 보인다는 의미"라며 자신의 성공 주식투자 비결을 밝혔다.

이날 유진투자증권 세미나에는 박 대표의 증시 전망과 투자전략 강연을 듣기 위해 300여명의 인파가 몰려들었다.

박 대표는 "일반투자자의 입장에서는 기업을 보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며 "어설프게 알고 투자했다가 잘못된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에게는 인생을 관조하면서 시야가 생길 때, 마흔 이후쯤 투자해도 늦지 않다고 얘기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자산 증식을 위해 서민에겐 주식투자만큼 효율적인 수단은 없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율이 터키와 그리스, 멕시코에 이어 세계 네 번째로 높은데 1년도 안돼 전업하거나 폐업하는 사례가 많다"며 "정치권에서 소상공인 지원 및 활성화를 말하지만 그건 서민을 계속 서민으로 남게 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잘 갖춰진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제도 하에서 좋은 기업을 선별해 투자하면서 그 기업의 주인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며 "그래야 최근 급속하게 진행되는 노령화 사회에서 안정적인 노후를 설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우리나라 기업은 CEO의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직원과 고객에게 열려있고 소통하는 경영인이 운영하는 기업을 눈여겨봐야 한다"며 "따라서 배당을 3% 이상 주겠다는 소명의식을 가져야 기업

박영옥 스마트인컴 대표가 지난 22일 유진투자증권에서 열린 투자강연회에 앞서 메트로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손진영 기자 son@

가 정신이 있는 회사라고 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장기 투자의 비법으로는 ▲기업의 주력사업이 영속적으로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사업구조가 단순한지 ▲기업지배구조 관련, 자회사 등 하위기업들의 재무상태까지 모두 건강한지를 살펴본다고 설명했다.

박 대표는 "무엇보다 주식투자의 답은 현장에 있다"며 "투자할 기업을 찾기 위해 그 회사의 직원들을 만나보는 것은 물론, 회사의 분위기와 식당의 메뉴, 화장실 내부까지 살펴본다"고 말했다.

일반투자자는 회사를 알아보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청중의 질문에 대해선 "그렇다면 그 회사의 주변 상권과 분위기를 살펴보면 된다"고 조언했다.

그는 농사를 짓듯 농부의 마음으로 주식에 투자하는 '주식농부' 철학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2008년 자녀들에게 증여한 돈 수천만원이 7년 만에 3억~8억원대로 불어났다.

박 대표는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주식계좌를 만들어주면 사회 참여의식도 생기고 경제교육도 된다"며 "자녀들에게 자신이 좋아하는 업종을 고르게 하고 투자를 시켰더니 길을 갈 때 그 회사의 제품만 봐도 보는 눈이 달라지더라"고 말했다.

그는 "과거 한국 사회는 근검절약과 공부만으로 부자가 될 수 있었지만 이젠 그렇지 않다"며 "100세 시대에는 주식투자에 대한 인식이 '매매해서 차익을 남기는 행위'가 아닌 '좋은 기업에 장기투자해서 성과를 공유하는 행위'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현재 45개 기업에 투자하고 있다. 국내 1위 농기계 업체인 대동공업을 10년째 갖고 있으며 IS동서, 참좋은레져, 고려제강, 우리투자증권 등이 그의 보유 종목이다.

/김현정기자 hjkim1@metroseoul.co.kr

구조조정, 최대 피해 女직원

39개 주요 금융사, 1년새 5천명 감소

금융권 구조조정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사람은 여성 직원들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남직원 1명이 줄어들 때 여성 직원은 2명꼴로 짐을 쌌다. 특히 삼성카드, 삼성증권, 삼성생명 등 삼성 계열 금융사의 여성 직원이 20% 이상 줄며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24일 CEO스코어(대표 박주근)가 은행·증권·생명보험·손해보험·카드 등 5개 금융업종 39개사의 고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올 상반기 전체 직원수는 16만2908명으로 1년전보다 5033명(3%) 감소했다.

남자 직원은 8만7182명에서 8만5394명으로 1788명(-2.1%) 줄었고, 여성 직원은 8만759명에서 7만7514명으로 3245명(-4%) 감소했다. 남자 직원 한명이 일자리를 잃을 때 여직원은 2명이 회사를 떠난 셈이다.

삼성카드는 여직원수가 1665명에서 131명으로 38.1%나 줄었고, 삼성증권과 삼성생명도 각각 34.2%, 26.3% 감소했다.

삼성 계열 금융사를 제외하면 전체 직원수 감소율은 -3%에서 -1.6%로 절반 가까이 낮아진다. 여직원 감소폭도 -4%에서 -1.7%로 떨어진다.

업종별로도 삼성 금융 계열사가 속한 곳의 여직원 감소 비율이 컸다.

증권 업종(10개사)은 여직원이 1만313명에서 8779명으로 14.9% 줄었고, 생명보험 업종(7개사)은 7781명에서 6691명으로 14%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두 업종의 남직원 감소율은 -9.9%와 -5.8%로, 여성보다 40~60% 이상 적었다.

동양증권 여직원 감소율이 -41.4%로 가장 높았고, 삼성증권(-34.2%), 대신증권(-25.6%), 우리투자증권(-16.4%), 하나대투증권(-9.3%) 순으로 높았다.

카드 업종(6개사)의 경우 여직원은 6125명에서 5556명으로 9.3% 줄어든 반면, 남직원은 5939명에서 6031명으로 오히려 1.5%가 늘었다. 업종 간 고용 추이 비교를 위해 카드사는 매출액 상위 '톱10'만 조사했다.

분석결과 삼성카드(-38.1%)만 여직원수가 40% 가까이 줄었을 뿐, 신한카드(-2.1%)와 롯데카드(-0.2%)는 감소폭이 미미했다. 현대카드(8.6%), 하나SK카드(2.4%), KB국민카드(1.3%) 등은 오히려 여직원수가 늘었다.

삼성카드측은 "여직원 감소 부분은 지난 1월 고객상담서비스 질을 높이고 전문화하기 위해 기존 상담조직을 삼성카드 고객서비스 회사로 분사했기 때문"이라며 "전문 상담회사 출범으로 상담여직원의 고용이 오히려 높아지고 안정화됐다"고 설명했다. /김태균기자 ksgit@

로베르 끌레제리, 구두상품 전시 24일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프랑스 슈즈 브랜드 '로베르 끌레제리'가 문을 열었다. 아시아 최초로 단독매장이다. 모델들이 1943년 생산된 구두(아랫줄 가운데) 등 대표상품 전시를 소개하고 있다. /뉴시스

'아파트는 삭막'…편견 깨는 '감성' 행보

건설업계, 포근한 가정이미지로 다가 가기

아파트를 짓는다고 다 팔리는 시대는 지났다. 'house'가 아닌 'home'을 공급해 위기를 벗어나려는 건설사들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단순 주택으로서의 아파트가 아닌, 포근한 가정이미지의 아파트를 파는 게 효과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이에 최근 들어 문화공간을 끼고 있는 아파트를 공급하거나 입주민들의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컬러디자인을 적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분양 전부터 지역 주민과 소통하고 공감을 나누면서 감성을 자극하기도 한다.

2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부산 사하구 신평동 일대 공급되는 '신평역 한양수자인 아이시티'는 아

한라가 최근 '금난새의 해설이 있는 음악회'를 개최해 지역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에게 특화된 단지의 콘셉트와 특·장점을 감성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샌드아트' 애니메이션을 선보이고 있다.

샌드아트란 빛이 나오는 라이트박스 위에 모래를 펼쳐 놓은 뒤 예술 디렉터가 직접 손으로 이미지를 그리면서 전달하는 스토리텔링 기법이다. '신평역 한양수자인 아이시티'는 이를 통해 미니 카약장과 수변놀이터, 암벽등반, 텃밭, 캠핑장, 키즈 놀이터, 맘스스테이션 등 아이에게 특화된 시설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올 하반기 시흥 배곧신도시 일대에서 대규모 신규분양을 준비 중인 한라는 지난 4월부터 사업지 인근에 '배곧누리 한라비발디 문화관'을 열고 수요자들과 문화적·감성적 교감을 나누고 있다.

문화관 오픈 이후 매달 유명강사를 초빙해 자녀 학습과 육아·재테크 등의 강좌를 열고 있으며, 자녀와 함께하는 공예·놀이·쿠킹 등 체험프로그램 등을 운영 중이다. 지난 15일 광복절엔 '금난새의 해설이 있는 음악회'를 열어 지역민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박선옥기자

김 빠진 '추석 특수'… 이통 3사 '한숨'

SKT·LGU+, 추가 영업정지… KT는 개인정보유출 보상 처분 받아

이동통신 3사가 빛 바랜 추석을 맞이하게 됐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추석 연휴에 추가 영업정지에 들어가며 KT는 개인정보 유출 고객에게 10만원씩 피해 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2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 추가 영업정지 제재안을 의결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27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SK텔레콤은 다음달 11일부터 17일까지 신규 가입자 모집이 금지된다. 다만 기기변경은 허용된다. 두 사업자는 지난 1~2월 차별적인 보조금 경쟁을 벌인 혐의로 일주일씩 추가 영업정지 징계를 받았다. 통상 명절 연휴는 고객 유치 대목이지만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추석 특수를 놓치게 됐다.

아울러 방통위는 이통 3사에 과징금도 부과했다. 불법 보조금 살포에 따라 SK텔레콤은 371억원, KT 107억6000만원, LG유플러스 105억5000만원 등 총 584억1000만원 규모의 과징금이 매겨졌다. 이로써 2010년 9월부터 최근까지 4년간 이통 3사에 부과된 과징금은 총 3127억4000만원에 달한다. 누적된 과징금 규모는 업계 1위인 SK텔레콤의 한 분기 순이익과 비견될 정도다.

KT는 추가 영업정지의 칼날은 피했지만 개인정보 유출 피해 배상이라는 난관을 겪게 됐다.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는 2012년 KT 전산시스템 해킹으로 인한 정보유출 피해자 2만8715명이 KT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에게 각 1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경찰청은 2012년 7월 KT 가입자 870만명의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지만 KT는 이 사실을 사건 발생 5개월 뒤에야 알았다. 해커 2명은 고객정보 해킹 프로그램을 만들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해 휴대전화 가입일, 고객번호, 요금제, 기기 변경일 등의 각종 개인정보를 빼냈다.

하지만 여론에선 '10만원도 부족하다'란 의견이 팽배하다. 2011년 터진 네이트·싸이월드 해킹 사건의 경우 SK커뮤니케이션즈는 지금까지도 20여 건의 피해 보상 소송에 연루됐다. 지난해 2월 서울 서부지법은 SK커뮤니케이션즈가 네이트·싸이월드 정보 유출 피해자들에게 1인당 2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번 판결에 대해 KT 측은 "항소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재판 판결을 떠나 KT는 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었다. 특히 지난 3월에도 올레클럽 고객 정보 유출 사건으로 인해 추가 소송도 제기된 상태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추가 영업정지 시기가 다가오는 가운데 이통 3사는 그 어느 때보다 흥을 잃은 추석을 맞이하게 됐다.

/장윤희기자 unique@metroseo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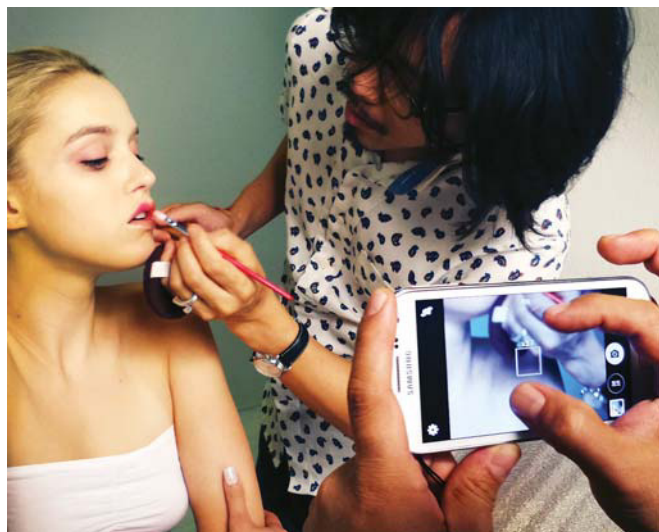
'갤럭시 줌2' 여심을 자극하다

삼성전자-에스쁘아, SNS 화보 콜래보레이션

삼성전자가 프리미엄 스마트폰 '갤럭시 줌2'와 메이크업 전문 브랜드 에스쁘아가 함께 진행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이크업 화보를 25일 공개한다.

인스타그램을 통해 공개하는 이번 메이크업 화보에서는 갤럭시 줌2로 촬영한 에스쁘아의 하반기 신제품 컬렉션을 볼 수 있다. 강력한 카메라 성능을 탑재한 갤럭시 줌2는 에스쁘아의 신제품 '프로 테일러 리퀴드 파운데이션'으로 연출한 피부결을 정교하게 표현한다.

광학 10배 줌과 2070만 화소를 탑재한 갤럭시 줌2는 정교함을 요하는 화보 촬영이 가능할만큼 뛰어난 카메라 성능을 자랑한다. 다양한 촬영 편의 기능도 지원해 일반인들도 전문가급의 고화질 이미지를 손쉽게 촬영할 수 있다. 특히 스마트폰의 특성상 촬영 후 바로 SNS에 이미지를 업로드하거나 공유할 수 있어 편리하다.

갤럭시 줌2로 촬영한 에스쁘아 인스타그램 메이크업 화보는 에스쁘아 공식 인스타그램과 삼성전자 모바일 공식 페이스북 계정, 갤럭시 줌2의 캠페인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콜래보레이션을 기념해 다음달 15일부터 '에스쁘아X삼성 갤럭시 줌2 인스타그램 모델 캐스팅 이벤트'도 벌인다. 최종 선발된 3명의 모델은 6개월간 갤럭시 줌2를 활용해 직접 에스쁘아 콘텐츠를 촬영하는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한다. 참가자 중 추첨을 통해 갤럭시 줌2와 에스쁘아의 메이크업 제품을 제공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평소 스마트폰을 통한 사진 촬영과 SNS 공유를 즐기는 젊은 여성 소비자들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국내 최초로 뷰티 브랜드와 SNS 화보 콜래보레이션을 기획했다"고 말했다.

/이재영기자 ljy0403@

"광대역 LTE 기지국수 체험하세요" KT는 우리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국수와 광대역 LTE 기지국 수를 위트있게 연결해 표현한 '광대역 LTE 기지국수' 광고를 온에어한다고 24일 밝혔다.

/KT 제공

애플, '아이폰5' 배터리 결함… 무상 교환

애플이 배터리 결함이 발견된 '아이폰5' 일부 기기의 무상교환을 실시한다.

애플은 22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일부 아이폰5에서 배터리 잔량이 갑자기 줄어드는 결함이 발견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교환 대상은 2012년 9월에서 2013년 1월 사이에 판매된 아이폰5 기종이다. 홈페이지 '아이폰5 배터리 교환 프로그램'(https://ssl.apple.com/kr/support/iphone5-battery)에 단말기 시리얼 번호를 입력하면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미국과 중국의 경우 이날부터 교환 프로그램을 가동했다. 한국 등은 29일부터 해당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이다.

배터리 교환 대상인 경우 애플 직영점이나 공식 서비스 센터를 통해 교체할 수 있다. 이미 자비로 배터리를 교환했을 경우 환불받을 수 있다고 애플측은 설명했다.

/이국명기자 kmlee@

"한전, 5년간 전기료 1500억 더 걷어"

한국전력이 최근 5년간 전기요금을 1500억원가량 더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은 24일 한전이 제출한 자료 분석 결과 2009~2013년 전기료 과다 수납액이 1561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과다 수납액은 2009년 276억원에서 2010년과 2011년 각각 305억원, 2012년 345억원, 2013년 330억원으로 늘었다. 최근 5년간 과다 수납액 중 주택용(468억원)이 산업용(375억원)보다 많았다.

2013년 말 기준 전기료 체납가구는 59만 가구로 2009년보다 30.8% 증가했다. 체납금액은 879억원으로 88.2% 늘었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의 체납금액이 13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134억원), 경기(99억원), 대전·충남(83억원) 순으로 높게 조사됐다.

백재현 의원은 "한전이 실시간으로 전기료 납부 결과를 확인할 수 없어 이중 수납의 개연성이 상존한다고 말하는데 납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이어 "서민·극빈층의 가계살림이 어려워져 체납한 것으로 짐작할 수 있지만 기업과 공공기관의 전기료 체납도 큰 몫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전 측은 "전기료 고지나 수납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며 "과다하게 받은 전기료는 돌려주는 한편 개선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재영기자

카카오 금융진출, 미래 모습은…

금융가 사람들

■ 김종현 우리금융 연구위원

식사 후 휴대폰을 꺼내 동료에게 식대를 전송하고, 주식을 사고팔며 별다른 인증 없이도 간단한 클릭만으로 천송이코드를 살 수 있는 시대.

정보기술과 결합된 금융은 4000만 스마트폰 이용객과 IT 기술을 기반으로 출구없는 성장을 하고 있다.

이미 미국의 페이팔이나 중국의 알리페이 같은 간편결제 서비스는 글로벌 IT기업을 등에 업고 지급결제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국내 IT기업 중에서는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가 송금과 결제를 할 수 있는 일명 '카톡뱅크'와 '카카오 간편결제' 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있다.

송금, 지급결제, 자산관리, 대출중개 등 다양한 영역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IT기업이 전통금융업의 강력한 경쟁자로 떠오른 셈이다.

지난 14일 메트로 신문과 만난 김종현(사진)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최근 금융소비자들의 니즈와 IT회사들의 경쟁전략을 감안할 때, 비금융업종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는 새로운 금융 비즈니스 모델의 성장 가능성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비금융회사들은 IT를 중심으로 기존 금융기관들이 간과한 틈새시장을 포착해 공략함으로써 새로운 금융수요를 창출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IT회사가 보유한 인프라 등을 통해 기존 금융회사가 갖지 못한 새로운 경쟁력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의 예상은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머니마켓펀드(MMF)를 판매한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는 지난 3월말 현재 8000만 명의 가입자를 확보했고, 약 5000억 위안(67조6000억원)의 자금을 수신하는데 성공했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알리파이낸스도 B2B 사이트에 축적된 기업의 거래정보 등을 활용해 신용대출을 한 결과, 부실채권비율이 중국 국영은행의 평균 중소기업 부실채권 비율(2%)보다 낮은 1% 이하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다.

김 연구위원은 "카톡뱅크 또한 지급결제 부문에만 머물지 않고 텐센트나 알리바바와 같은 비즈니스 모델로 확장될 경우 국내 금융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지난 4월 현재 카카오톡 누적 가입자 수가 1억4000만 명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대규모 가입자와 고객정보를 기반으로 한 금융서비스 부분의 성장 가능성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카카오가 전자지갑의 전용계좌를 통한 송금·결제뿐만 아니라 자산관리를 담당하는 금융회사와 제휴할 경우, 수익형 금융상품까지 판매함으로써 사실상 은행, 증권사 등 기존 금융회사의 역할까지 담당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그는 다만 "송금 한도나 금융거래의 제약, 보안 위협 등의 요인으로 인해 카톡뱅크가 실제 금융업에 끼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인터넷 쇼핑몰이 생길 당시 유통업체들의 모습과 현재의 형태를 상기해보면 금융업 역시 함께 진화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와 함께 김 연구위원은 "국내 금융회사들은 비금융회사의 금융시장 진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터넷 전문은행 등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의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자사의 스마트폰 뱅킹 서비스 확대 등 새로운 금융 비즈니스 모델이 갖는 이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경쟁전략을 검토하는 동시에 온오프라인 거래채널을 모두 보유한 장점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아란기자 alive0203@

"대출할 때 이것 꼭 체크"

금감원과 함께하는 금융 이야기

'금감원과 함께하는 금융이야기' 이번 주에는 대출 거래할 때의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리=김현정기자 hjkim1@metroseoul.co.kr

대출은 자신의 신용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거래시 대출 목적과 상환 능력, 상환 방법 등을 꼼꼼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대출금 연체는 신용등급 악화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 경매로 처분되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대출을 계획 중이라면 아래 내용을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대출금의 사용 용도가 꼭 필요한 것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합니다. 또 이미 현금서비스나 카드론, 다른 대출이 있다면 대출 만기시기가 겹쳐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이자 수준이 평소 생활의 수입과 지출 속에서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인지도 필수적인 확인 사항입니다.

금융기관별로 대출 조건이 어떻게 다른가 충분히 파악해야 합니다. 이자율과 상환조건, 대출비용 등을 잘 알아봐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대출 상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할 사항은 이자율입니다. 특히 이자율이 고정금리인지 변동금리인지 등을 잘 살펴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더불어 대출한도와 대출기간 등도 꼭 살펴봐야 합니다.

이자율이 낮더라도 필요한 금액만큼 대출받지 못하면 다른 금융기관에서 추가 대출을 받아 비용이 오히려 더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한 목적의 장기적인 저축계획이 필요합니다. 대출금 상환에 대비해 알맞은 자금 마련계획을 세우고 매달 일정 금액 이상씩 저축해야 합니다.

대출금 상환방식은 만기일시상환과 원금균등분할상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거치상환방식 등이 있으며 방식에 따라 이자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만기일시상환은 만기일까지 대출금의 상환부담이 적은 반면, 일시에 대금을 상환해야 하는 부담과 함께 분할상환방식보다 이자가 비쌉니다.

그러므로 한 번에 상환할 만큼 자금을 충분히 마련할 계획이 없다면 이 방식은 추후 대출금 상환이 매우 부담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분할상환방식의 경우 매달 상환해야 하는 원금 부담은 있지만 일시상환방식에 비해 이자율 비용 부담이 적은 장점이 있습니다.

대출기간도 중요합니다. 무조건 대출기간을 오래 늘리기보다 대출금의 사용목적과 상환여력, 자금수급 등을 고려해 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기간이 길수록 이자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대출기간은 1~3년입니다.

11번가, 신학기 맞이 노트북 기획전 24일 오전 서울 을지로 SK T타워에서 모델들이 11번가 신학기 맞이 노트북 기획전을 홍보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 소비자, 자산부채관리 역량↓

우리나라 국민의 전체 소비자 역량이 2010년에 비해 상승했지만 자산부채관리와 정보이해·활용 부문의 역량은 아직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며 지난 2010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한 '한국의 소비자 역량 지표' 조사 결과, 올해 우리나라의 소비자 역량 지수는 2010년의 61.5점보다 2.5점이 상승한 64.0점이었다.

'소비자 역량'이란 소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현대 사회의 소비자가 갖추어야 하는 지식·태도·실천의 총체를 의미한다.

소비자 역량 지수는 우리나라 성인 소비자의 소비자 역량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 나타낸다. ▲재무관리 역량 ▲거래 역량 ▲시민 역량 등 세 영역의 지수에 가중치를 적용해 산출하며 올해의 소비자 역량 조사는 총 81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소비자 역량 지표를 활용하게 된다.

이번 조사 결과 각 부문별로는 ▲사용 분쟁해결(66.96점) ▲소비사회 적응(66.40점) ▲소비자권리 주장(66.16점) 역량은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에 ▲정보 이해·활용(61.08점) ▲위협 관리(61.65점) ▲자산부채 관리(61.86점) 역량은 낮았다.

/정영일기자 prms@

평택 브라운스톤 험프리스, 9월 분양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 일대 '평택 브라운스톤 험프리스' 아파트가 9월 공급된다. 지하 1층, 지상 15층, 15개동, 전용면적 84~145㎡, 전체 944가구로 구성됐다. 가람우즈가 시행을, 이수건설이 시공을 맡았다.

평택은 2016년 K-6캠프 험프리스 미군부대 조성이 마무리되면 총 8만여 명의 인구 유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다. 현재 주한미군 사령관이 민간건설사를 대상으로 지역 내 주택 공급을 요청할 정도로 주택난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에 따라 K-6캠프 험프리스 정문인 안정리게이트와 약 650m 거리인 '평택 브라운스톤 험프리스'는 미군 렌탈용 아파트로 적합하다는 평가다.

평택 이수 험프리스 조감도.

특히 미군의 경우 계급별 주택수당 제도에 따라 월 300만원 상당의 임대료 지원을 받기 때문에 월세 미납 및 공실 등의 위험이 적다. 또 미군 및 관련업체 주택관리과에서 직접 임대계약을 체결해 임대인의 통장으로 임대료를 입금해 주는 등 관리가 편리하다.

분양 관계자는 "미군 주택 규정에 적합한 수납공간 및 주거편의시스템을 갖춘 것은 물론, 가스오븐·식기세척기 등도 무상으로 제공한다"며 "주변 안정리 상업지구 중 일부가 국제문화특구로 지정되면서 일대가 평택의 이태원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높다"고 설명했다.

견본주택 오픈 전 사전상담이 가능하다. 문의: 02)553-9000

/박선옥기자 pso9820@

www.HanaTour.com
런던증권거래소 상장기업

허니문 Honeymoon

주말상담회

제4회 하나투어웨딩 & 허니문박람회

장소 | 하나투어 빌딩 지하 1층
일시 | 2014년 9월 27일(토요일)
2014년 9월 28일(일요일)
오전 11시~오후 7시

예비신랑 예비신부님 주말에도 허니문 상담 받으세요!

허니문 주말상담회 일시
2014년 8월 30일(토요일)

허니문 주말상담회 장소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5길 41
하나투어 빌딩 2층
하나투어리스트

허니문 주말 상담회에 참여하는 신랑 신부님께 드리는 특전!

EVENT 01 하나투어 마일리지 40만 마일리지 지급!

EVENT 02 면세점 5만원 선불카드 교환권 지급!
(2014년 12월 31일까지 출발 고객)

BEST 01

세부 5일

J파크 아일랜드(베이비문)

1,507,600부터 ● 세부(3)

▶ 매주 토,일,월요일 출발

- 막탄 스윗 오션뷰 이용, NO 쇼핑
- 출발 1개월전 완납시 커플당 10만원 할인
- 기내용 캐리어 20인치+보스턴백(커플당 1개)
- 프리맘을 위한 여유 있는 22시 레이트 체크아웃
- 프리맘을 위한 외부 스톤마사지 120분, 나이트투어
- 리조트식 4회 및 특식 2회(하나투어 단독 레스토랑 '하나팟' 샤브샤브+재즈 앤 블루스 재즈바 특식)
- 리조트 내 여유로운 자유시간 최대 보장

BEST 02

파리지엔느 6일

가이드 동행+자유여행

2,773,800부터 ● 파리(4)

▶ 매주 토,일,월요일 출발

- 전일정 준특급호텔 숙박, 공항→호텔간 센딩 서비스
- 주간 에펠탑 전망대(2F)+일정중 바나나 크레페 포함
- 세느강 유람선과 반짝반짝 파리 야경투어 포함
- 58 Tour Eiffel(파리 에펠탑 2층에 위치한 레스토랑 코스요리)
- 스타 가이드와 함께 관광(파리 1일)

BEST 03

푸껫 6일

더키파통(2)+르네상스 풀빌라(2)

1,509,100부터 ● 푸껫(4)

▶ 매주 토,일,월요일 출발

- 출발 30일전 완납시 커플 50만원 할인
- 여행용 캐리어 제공(커플당 1개)
- 팡아만 관광(씨카누 포함), 피피섬 관광(섬일주&스노클링 포함)
- 스파마사지 3회(허브사우나&발마사지 1시간 30분)
- 전통안마 2시간, 아로마오일&타이마사지 2시간
- 사파리투어(코끼리트레킹 포함), 아프로디테쇼(VIP석) 관람
- 풀빌라 자유시간 점심, 저녁식사 리조트식 포함

BEST 04

피지/시드니 7일

시드니 2박+피지 3박

3,030,600부터 ● 시드니(2)-난디(3)

▶ 매주 토,일요일 출발

- 하나투어 쌍당 50만 하나투어마일리지 적립
- 피지-싸우스 씨 아일랜드 크루즈 포함
- 피지-잠자는 거인의 정원 관광, 피지 전통 마을 방문
- 시드니-블루마운틴(시닉 레일웨이, 곤돌라, 스카이웨이 탑승) 호주에서 가장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쇼보트 디너 크루즈" 오페라하우스, 하버브릿지, 하이드파크, 세인트 매리 대 성당

■[여행상품 가격포함내역]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전쟁보험료,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송/숙박/식사요금, 여행자보험료, 현지관광입장료 등 반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모든 경비는 포함입니다.(단, 개별여행상품은 미적용) ■[유류할증료] 여행상품 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며 발권일, 환율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합니다. ■[가이드/기사경비] 현지에서 지불해야하는 필수 경비입니다.(자세한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hanatour.com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자] 필요로 하는 일부 지역의 경우 비자요금은 상품가에 불포함입니다. ■[선택경비] 현지에서 고객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관광에 참여가능하며 그에 따른 선택경비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선택관광 미참여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hanatour.com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너팁] 소비자의 자율적 선택사항으로 지불 여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여행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여행자의 사전 동의를 받습니다. ■본 여행상품은 (주)하나투어리스트에서 판매하고 실제 여행주관은 (주)하나투어가 담당합니다.
■(주)하나투어 : 관광사업자 등록번호 제 26004-1993-6(종로구청)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5길 41 하나투어 빌딩/영업 보증보험 22억 1천만원 가입 ■(주)하나투어리스트 : 일반여행업 등록 2002-3호(서울시 종로구청)/영업 보증보험 5억 5천만원 가입 ■고객칭찬/불편접수 : Tel. 1577-1233(ARS 안내번호 9번) ■최소 출발인원 : 10명 기준 ■호텔 : 2급호텔 이상 2인 1실 사용 ■교통편 : 항공/버스/훼리(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HNT 하나투어리스트
허니문 상담팀 02) 2127-1234

HNT 하나투어

쿠페 스타일 SUV, 더욱 부드러워졌다.

■ 레인지로버 이보크 SD4

9단 자동변속기 적용으로 매끄러운 가속 '자랑'

분명 SUV인데 쿠페 같은 느낌이다. 거리의 시선이 쏟아진다. 가격표를 보면 입이 쩍 벌어진다.

랜드로버의 스타일리시한 SUV, 레인지로버 이보크의 특징은 이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이보크는 2008년 첫 선을 보인 콘셉트카 'LRX'를 그대로 양산화한 모델이다. 포르쉐 마칸과 BMW X4가 경쟁자로 뛰어든 지금도 이보크의 독특한 스타일은 단연 돋보인다.

업그레이드 된 2014년형 모델은 9단 자동변속기와 액티브 드라이브라인(가솔린 모델)으로 무장했고, 엔트리 모델인 '퓨어'가 추가된 게 특징이다. 시승차는 2.2 디젤 중 최고급형인 SD4 다이내믹 모델이다.

이보크의 차체 높이는 1635mm로 데뷔 당시만 해도 동급에서 가장 낮았다. 덕분에 날렵한 이미지를 뽐낼 수 있었다. 그러나 이후 등장한 포르쉐 마칸과 아우디 SQ5, BMW X4의 차체 높이가 1624mm로 설계돼 '가장 낮은 SUV'라는 타이틀은 없어졌다.

가죽으로 곱게 단장한 실내는 개성이 뚜렷하다. 폴리카보네이트 재질의 파노라믹 루프는 탁 트인 시야를 주지만 틸팅이나 슬라이딩이 불가능하다. 부분 개방이 가능한 선루프를 선택하도록 하면 더 좋을 것 같다.

이보크의 휠베이스(앞뒤 차축간 거리)는 2660mm로 경쟁차 중 가장 짧다. 아우디 SQ5는 2813mm, X4는 2810mm, 포르쉐 마칸은 2807mm로 모두 이보크보다 길다. 휠베이스는 앞뒤 좌석 레그룸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 동일한 운전석 공간을 확보할 경우 이보크의 뒷좌석이 가장 좁은 것도 이 때문이다.

2014년형 모델의 가장 큰 특징은 ZF의 9단 자동변속기 탑재다. 기존 6단 자동변속기에 비해 세밀해진 기어비는 엔진의 반응을 더욱 빠르고 부드럽게 전달한다.

최고출력 190마력의 2.2 디젤 엔진은 출력이 뛰어나고 변속기와의 궁합도 좋다. BMW X4와 같은 출력이지만 이보크는 최대토크가 42.8kg·m로 X4(40.8kg·m)를 앞선다.

다만 급가속 때의 치고 나가는 맛은 이보크가 떨어진다. 정지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시간은 X4 2.0이 8초인데 비해 이보크 2.2는 8.5초다. 기존 6단 변속기에 비해서 변속은 부드러워졌으나 킥다운의 짜릿함은 덜하다.

이보크 2.2 디젤의 연비는 도심 11.6, 고속도로 16.0, 복합 13.3km/ℓ다. BMW X3 20d(복합모드 14.1km/ℓ)보다 뒤지는 연비다. 시가지와 간선도로를 절반씩 섞어 달린 이번 시승에서는 9.0km/ℓ의 연비를 기록했다.

이보크는 멋진 디자인이 가장 큰 무기이지만 비싼 가격이 늘 지적대상이었다. 랜드로버 코리아 측이 "'깡통차'는 수입 안 한다"는 입장이었기 때문. 그러나 BMW X4 2.0(7020만원)이 등장하자 가격을 6630만원으로 낮춘 '퓨어' 모델을 추가했다. 시승차인 다이내믹 모델(8150만원)과 비교할 때 크게 아쉬운 옵션은 없다. 이보크의 가격이 부담스럽다면 퓨어 모델을 눈여겨 볼만하다.

▲한 줄 평가: 9단 변속기로 연비 향상을 꾀했다. 가격은 여전히 비싸다 ▲평점: ★★★☆(평점은 별 다섯 개 만점. ☆는 1/2)

/ferrari5@metroseoul.co.kr

현대차 출시 프리미엄 세단 名 '아슬란'

<수입차 인기모델 중고차 시세> 단위:만원

제조사	차종	2009년식	2010년식	2011년식	2012년식	2013년식
BMW	뉴3시리즈	2,530	2,650	2,830	3,600	4,010
	뉴5시리즈	2,380	2,420	3,900	4,050	–
미니	쿠퍼2세대	1,790	2,010	2,250	2,460	2,560
벤츠	뉴C클래스	2,910	2,970	3,040	3,290	4,040
	뉴E클래스	3,390	3,610	3,920	4,310	4,700
아우디	뉴A4	2,310	2,590	2,870	3,200	3,740
	뉴A6	2,590	3,350	3,970	4,190	4,800
폭스바겐	골프6세대	1,600	2,000	2,250	2,430	2,680
	티구안	2,110	2,380	2,790	3,290	3,590
혼다	올뉴어코드	1,480	1,620	1,820	2,600	3,360
	CR-V	1,790	1,820	2,270	2,910	2,900

정보제공 : 다나와 자동차(auto.danawa.com)

현대자동차가 올 하반기 출시 예정인 프리미엄 세단 AG(프로젝트명)의 차명이 '아슬란(ASLAN·사진)'으로 확정됐다.

'아슬란'은 사자(獅子)라는 의미의 터키어다. 세련되고 위풍당당한 카리스마가 돋보이는 신개념 프리미엄 세단이라는 콘셉트를 반영한 차명이다.

사자는 초원을 내려다보며 여유로움을 만끽하다가도 사냥을 하거나 무리를 지켜야 할 때는 맹수(猛獸)의 용맹함을 드러내는 동물의 제왕(帝王). 현대차는 당당하고 품격 있는 외관, 안정적인 승차감과 최상의 정숙성을 동시에 지닌 AG만의 차별적 가치를 사자의 특성에 투영해 차명을 아슬란으로 선정했다.

지난 5월 부산모터쇼를 통해 외관이 공개된바 있는 아슬란은 현대차의 디자인 철학인 플루이딕 스컬프쳐2.0을 적용해 넓은 이미지와 품격 있는 디자인을 구현했다. 멀리서 봐도 한눈에 당당함과 위용을 느낄 수 있다. 이는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용맹스러움이 느껴지는 사자의 이미지를 연상케 한다는 것이 현대차 측의 설명이다.

특히 현대차는 수년에 걸친 국내 고급차 고객 대상 심층조사를 통해 든든하면서도 편안한 승차감, 아늑하고 우아한 실내공간 등 고객 취향을 제품에 적극 반영했다. 이를 위해 수개월에 걸친 정밀 튜닝·승차감 테스트 등을 통해 타깃 수요층이 원하는 최적의 승차감을 찾아내려 애썼다. 또 소음과 진동 대책을 통해 최고급 세단 이상의 정숙성을 구현하고자 노력했다.

회사 측은 신차 아슬란을 통해 시장 대응력을 강화하고 하반기 국내 자동차 시장에 새 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아슬란은 개발 단계부터 차명 선정에 이르기까지 면밀한 시장분석과 고객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심혈을 기울여 만든 신차"라며 "기품과 여유, 용맹함을 모두 갖춘 초원의 제왕 사자의 자부심을 아슬란 오너들에게 선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슬란은 4000만원 초중반 대의 가격으로 올 하반기 공식 출시될 예정이다.

/임의택기자

달라지는 호남정서 불씨 살렸으면…

청론탁설
유 병 필
<언론인>

소선거구제 실시 26년 만에 처음으로 여당인 새누리당의 이정현 후보를 당선시킨 호남에서 주목할 만한 뉴스가 또 나왔다. 순천시 곡성군 '7·30재보선'을 통해 철옹성 같은 야당 텃밭에서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되어 최대의 이변을 호남에서 연출해 큰 파장을 일으킨바 있다.

이번에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 광주에서 일어났다. 광주비엔날레 특별전에 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한 홍성담씨의 걸개그림 작품 '세월오월' 전시가 성사되지 못하게 되었다. 지난 80년대 우리나라 대표적인 민중미술작가 홍성담씨가 그린 이 작품에는 박 대통령은 물론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과 이건희 삼성회장도 들어있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계급장과 검은 선글라스 모습도 그려져 있다.

지난 20일 윤장현 광주시장은 안종일 전 광주시 교육감, 김양균 전 헌법재판관, 조비오 신부 등 원로 16명과 만찬을 함께 하고 광주비엔날레 특별전에 박 대통령을 풍자한 '세월오월' 전시문제를 놓고 의견을 개진했다. 이 자리에서 대부분 원로들은 "박 대통령을 풍자하는 그림을 특별전에 전시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만찬에 배석한 광주시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지역 원로 한두 분을 제외하고는 참석자 대부분이 풍자그림전시를 반대했다" 고 한다.

진보성향의 일부 원로인사들 마저 "예술차원에서 국가 원수를 패러디할 수는 있지만 '세월오월'처럼 직설적으로 패러디한 것은 지나치다"는 의견을 보였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어느 원로는 "표현의 자유에는 표현의 책임도 뒤 따라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 인식되어온 호남의 정서로는 매우 이례적인 사례로 받아들여진다.

이에 대해 윤장현 광주 시장은 "'외로운 섬'이 되지 않는 광주, 당당하게 다른 지역을 품고 가는 '열린 광주'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이제 이정현 의원 당선과 함께 이와 같은 작은 불씨가 커져 영호남의 갈등을 해소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갈등이 많은 나라로 지목되고 있다. 1위인 터키는 종교적인 갈등을 겪고 있어 실제로는 우리나라가 가장 심각하다. 이러한 면에서 호남의 정서가 변하고 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이에 부응하여 영남에서도 맞불을 놓아 지역 간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 대통합의 길을 열어야 할 것이다.

카톡 뱅킹 스마트폰으로

뉴스룸에서
박 성 훈
<경제산업부차장>

"결혼식 못가서 미안하다. 축의금은 카톡으로 보낼게."

이르면 다음달부터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으로 돈을 보내고 받는 것은 물론 결제를 할 수 있다. SNS로 금융·상품 거래를 하는 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카톡 운영사인 카카오는 국민·신한·우리 등 15개 은행과 제휴해 다음달 중순부터 소액 송금 서비스인 '뱅크월렛카카오'를 선보인다.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한 뒤 자신의 은행계좌 1개를 등록해 계좌에 있는 현금을 카톡 가상계좌로 이체(충전)하는 방식이다.

한번에 50만원까지 충전한 뒤 카톡 친구에게 하루 10만원까지 송금할 수 있다. 은행 현금카드 기능을 탑재해 현금 인출기에서 돈을 뽑거나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결제도 할 수 있다.

거래수수료는 기존 은행거래보다 훨씬 싼 100원 내외가 될 전망이다.

카카오의 영역 확장은 끝이 없다. 택시를 카톡으로 부르는 '카카오 택시' 사업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

카톡과 GPS를 이용해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택시를 호출한 뒤 결제까지 할 수 있는 사업 모델이다.

한마디로 카톡과 같은 모바일 SNS 서비스를 이용하면 어지간한 생활 편의는 다 누릴 수 있는 셈이다.

문제는 이들 서비스의 안전과 보안이다. 모바일보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여전히 해킹이나 스미싱과 같은 보안 사고가 빈번한데 모바일 결제는 이러한 부작용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카톡만 해도 여전히 접속장애 오류로 메시지 전송이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만약 송금을 하거나 결제를 할 때 이러한 장애가 발생하거나 해커가 악의적인 행동을 한다면 다수의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다.

소비자는 분명히 결제를 했는데 공급자는 돈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하고 친구에게 축의금을 보냈는데 입금되지 않았다는 통보가 오는 일들이 심심찮게 일어날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스마트폰 피로도' 증가다.

지금도 스마트폰을 손에서 내려놓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하물며 이들 SNS가 은행·신용카드·택시역할까지 한다면 스마트폰과 잠깐이라도 '헤어지는 일'은 더욱 어려울 것이다.

포토프리즘 분수대와 동심

22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분수대를 찾은 어린이가 즐겁게 물놀이 하고 있다. 며칠간 계속된 비가 그치고 오랜만에 비치는 뜨거운 햇살에 거침없이 물 속으로 뛰어 들어가는 아이의 모습이 재미있다. /손진영기자 son@

한 번만 제대로 생각하면 될 일

박상진의 트렌드읽기

P씨는 매일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해 출퇴근한다. 2주 전 출근길에 내비게이션으로 수신된 경고 메시지를 확인했다. 강우와 강풍 알림을 인지했지만 해당 지역이 충남과 제주라는 사실에 무심히 넘겼다. 며칠 전 출근길에는 서울 진입이 불가능한 게 아닐까 싶을 정도의 강우로 침수된 고속도로를 달렸다. 빽빽하게 정체된 도로에서 대체 비바람이 어느 정도일까, 언제까지일까 궁금했지만 내비게이션의 재난 정보 배달은 없었다. 그때 기억이 났다. 자신과 상관없는 지역의 알림은 세 번이나 왔던 것, 그리고 그 메시지를 확인하느라 고속 주행 중에 차선을 넘을 뻔했었던 장면이 있었다는 것을.

L씨는 업무 차 남산터널을 지났다. 요금소를 지나 차선을 변경하려다 핸드폰 문자 알림에 반사적으로 속도를 줄였다. 옆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려다 놀라 급정거하는 소리를 들었고, 자신도 모르게 브레이크를 밟았다. 아찔했지만 다행히 사고는 없었다. 퇴근길에는 김포로 향하는 강변북로에 올랐다. 피로에 넋을 놓고 운전하다 또 하나의 문자를 받았다. 누구에게 온 걸까 궁금해 하다가 핸드폰을 열었고, 그 순간 자신의 앞으로 끼어드는 차량을 뒤늦게 발견했다. 놀라서 핸들을 꺾느라 핸드폰은 떨어뜨렸지만 간발의 차로 추돌을 면할 수 있었다. L씨가 받았던 두 개의 문자는 모두 요일제 차량 운행 위반에 대한 경고와 벌칙 안내였다.

M씨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해소되지 않는 통신업무가 있어 전화 상담을 시도했다. 콜센터 자동응답을 두 번이나 들었지만 자신이 원하는 서비스에 대한 안내는 없었고, 그 과정에서 상담원과의 직접 연결은 불가능했다. 할 수 없이 연관성이 있다고 짐작되는 안내 번호를 눌렀고, 또다시 자동응답을 들었다. 이번에도 자신에게 꼭 맞는 안내가 없어 상담원과의 연결을 선택했다. 간단한 사용자 확인 절차가 진행됐고, 상담 내용이 녹음된다는 등의 추가 안내를 받았다. 결과는 사용자가 많아서 연결이 지연된다는 또 다른 통보와 함께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다양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는 응답기의 친절뿐이었다.

제공자의 입장이 아니라 제공받는 자의 입장에서 만들어지는 서비스는 이상향에 불과한 것일까. 유용한 기술을 이용해 인간을 만족시키는 방법이 현명하게 계획되기가 그토록 어려운 것일까. 두 번, 세 번 생각하고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한 번만 제대로 생각하면 될 일이다. 그 한 번이 긍정의 나비효과를 가져올 수도, 치명적 부작용을 가져올 수도 있다. 우리 모두는 그럴 수 있는 존재다.

/인터패션플래닝(www.ifp.co.kr) 대표

전교조 미복귀자 면직이 능사?

기자수첩
윤 다 혜
<정치사회부 기자>

교육부는 11개 시·도교육청에 미복귀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임자 27명을 다음달 2일까지 직권 면직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이에 불응할 경우 행정대집행이나 형사 고발할 방침이다.

대집행은 교육부가 시·도교육감을 대신해 시·도교육청에 징계위원회를 열 것을 직접 명령하고, 미복귀 전임자를 직권면직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방침은 전국 상당수 시·도교육감이 지난 19일까지 전교조 전임자의 직권면직에 대한 교육부 명령을 거부하면서 나왔다. 특히 강원도교육청은 "교사에 대한 직권면직 명령이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 중 누구의 권한인지 가릴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교육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명령을 따른 교육감은 충북·충남과 대전이다.

전교조는 6월 19일 법외 노조 판결을 받았다. 합법 노조가 아닌 이상 전임자에 대한 휴직 사유가 소멸된다. 그렇다고 미복귀 전임자에 대한 면직을 당장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직권면직은 사실상 해직이기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교육부가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면직 지침을 강행할 경우 오히려 대규모 해직사태를 낳을 수 있다. 또 명령을 거부한 시·도교육감들은 직무유기로 형사고발을 당할 수도 있다. 교육감들과의 갈등 양상이 심화될 경우 교육현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27일로 예정된 황우여 교육부 장관과 전국 시·도교육감들의 상견례 자리에서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 문제에 대한 심도있는 대화가 필요하다. 직권면직을 강행하는 것보다 사회적 진통을 씻을 수 있는 해결책이 나오길 바란다.

추석선물 홍시 대신 망고?

38년만의 이른 추석…구매 트렌드도 바꿔

38년 만의 이른 추석이 상품 구매 트렌드까지 바꿔놓고 있다. 올해 추석은 9월 8일로 지난해보다 11일, 재작년과 비교하면 22일이나 빠른 만큼 '여름 추석'으로 불린다.

24일 온라인몰 업계에 따르면 선물용 과일로 망고 등 수입과일이 인기를 얻고 있으며, 때 이른 추석에 반팔 개량 한복 판매량도 늘었다.

◆망고 뜨고 홍시 지고

온라인쇼핑사이트 G마켓이 지난 14일부터 20일까지 최근 일주일간 과일 판매량을 조사한 결과, 작년 추석 전 동기(2013년 8월 25~31일) 대비 수입 과일 판매가 7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국산 과일 판매는 53% 늘었지만, 곶감·대추 등 건과일은 28% 감소했다. 특히 망고의 경우 올해 판매량이 작년보다 1896% 폭증하며 전체 과일 중 가장 큰 증가율을 기록했다.

수입과일인 골드 키위 판매도 전년 대비 25% 판매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최근 일주일간 대표 추석 과일로 불리는 단감·홍시·곶감·배는 전년 대비 각각 27%, 21%, 35% 감소했다.

또 날씨에 영향을 덜 받는 선물 세트를 찾는 소비자도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11번가에 따르면 기온이 높아지면서 배송시 상할 위험이 적은 선물세트인 견과류 매출이 동기간 전년(2013년 8월12~26일)대비 43%, 건어물은 5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초기 등 판매 호조

특히 올 추석은 예년보다 높은 기온이 예상됨에 따라 반바지와 반팔, 원피스 등 가볍고 활동성이 좋은 개량한복이 인기다.

옥션에 따르면 지난 14일부터 20일까지 최근 일주일 동안 아동한복·장신구 판매가 전년 동기대비 4배 이상(450%) 증가하는 등 추석빔을 준비하는 이들이 크게 늘었다.

이른 추석으로 8월 말에 벌초가 진행됨에 따라 예초기 및 보안용품 판매도 빨라졌다. 무성한 풀이나 나무를 제거하기 위한 예초기 판매량이 전년대비 같은 기간 140% 증가했다.

/김리선기자 leesun@

흐린 날씨에도 자외선 조심을

최근 흐린 날씨가 지속되면서 자외선 관리에 소홀한 경우가 많다. 하지만 구름이 자외선을 반사해 자외선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흐린 날씨에 오히려 자외선 피해가 클 수 있다.

자외선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면 피부 손상이 늘어난다. 피부 노화를 촉진시키고 멜라닌 색소를 침착시켜 피부색을 어둡고 칙칙하게 만든다. 또 피부 혈관이 확장되기도 하고 심각한 경우에는 피부암까지 이어진다.

하지만 자외선을 조심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외선 노출 빈도가 많아질수록 활성산소 피해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인체 대사 활동의 부산물로 발생하는 활성산소는 노화의 주범이 될 뿐 아니라 ▲심·뇌혈관질환 ▲암 ▲관절염 ▲

천식 등을 유발한다.

따라서 햇빛이 집중되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외출을 자제하고 긴 소매 옷을 착용하는 것이 좋다. 부득이하게 외출을 해야 할 때는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바르고 양산이나 선글라스, 모자 등을 활용해 자외선을 차단해야 한다. 또 자외선 차단제는 물이나 땀에 씻겨나갈 수 있으므로 1~2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주는 것이 좋다.

/황재용기자 hsoul38@

22일 서울시청 태평홀에서 열린 한일축제한마당 자원봉사자 오리엔테이션 모습. /주한일본대사관 제공

내달 14일 '한일축제한마당'

자원봉사 열기 뜨거워

한국과 일본에서 매년 열리는 한일문화교류행사 '한일축제한마당 2014 in Seoul'이 9월 14일 코엑스 전시장 C홀에서 개최된다. 이 축제는 2005년 9월 한일국교정상화 40주년을 기념한 '한일우정의 해'에 시작해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한다. 한일 양국 시민이 자원봉사로 참여해 함께 만들어가는 한일 최대의 문화교류의 장으로서 '풀뿌리 교류'의 대명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올해는 '축제 10년, 꿈을 싣고'를 테마로 진행된다. 한국과 일본의 무대공연을 비롯한 다양한 관광·체험 부스와 기업 부스 등을 통해 보다 풍성한 축제가 마련됐다.

양국 교류의 의미로 열리는 만큼 자원봉사 참가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난해에는 하루 동안 약 4만5000명의 시민과 700명이 넘는 자원봉사자가 참가했다.

올해도 고등학생을 비롯해 대학생, 직장인들까지 1167명이 자원봉사에 지원해 모집을 조기마감 했을 정도다. 이 중 850명을 선발해 22일, 24일 두 차례에 걸쳐 서울시청 태평홀에서 연출팀·부스팀·홍보팀·운영팀으로 나뉘어 행사의 개요부터 각 팀의 역할에 대해 설명하는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가졌다.

한일축제한마당 운영위원회는 "이번 축제를 통해 한일 양국 시민이 서로의 문화를 직접 체험하면서 상대국에 대한 친근감과 연대감을 더욱 돈독히 다지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혜인기자 hijung0404@metroseoul.co.kr

글로벌 브랜드 '스포츠 마케팅' 활기

업체들, 후원 통해 제품 인지도 높이기

소치 동계올림픽과 브라질 월드컵에 이어 열리는 인천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국내외 기업들의 스포츠 마케팅 활동이 주목을 받고 있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푸마는 이달 초부터 전 세계적으로 '포에버 패스터(Forever Faster)'라는 새로운 브랜드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푸마는 이번 캠페인의 일환으로 세계적 육상선수인 우사인 볼트와 축구 스타 마리오 발로텔리, 골프계의 패셔니스타 리키 파울러 등이 출연하는 광고를 선보이고 있다. 이를 통해 지속적인 혁신을 거듭,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앞서가는 스포츠 브랜드로 자리매김 하겠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특히 단순히 1등, 최고만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차별화된 기량과 재능으로 자신감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푸마 선수들의 모습은 푸마 브랜드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과 같다는 점을 마케팅을 통해 강조했다.

스포츠 브랜드 케이스위스는 트라이애슬론(철인 3종 경기)의 국내 보급에 힘쓰고 있다.

지난 2009년부터 대한 트라이애슬론 연맹과 스폰서십 계약을 맺고 대회 개최와 엘리트 선수를 후원하고 제품을 지원해왔다. 특히 케이스위스는 단순한 후원을 넘어

엘리트 선수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경기력 향상을 위한 퍼포먼스 라인을 개발해 출시하고 있다.

코카콜라사는 전 세계적인 캠페인과 함께 국내 시장을 기반으로 한 스포츠 마케팅 활동에 적극적이다. 그 중 '코카-콜라 체육대상'은 한국코카콜라가 아마추어 스포츠 육성 및 한국 스포츠 발전을 위해 우수 선수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아마추어 스포츠 시상식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다.

CJ그룹은 다음 달 인천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베트남 여자 태권도 대표팀 후원활동을 펼쳐왔다.

대표팀 감독 파견을 비롯해 각종 장비 및 훈련, 체제비용 등을 후원해 6개 계열사가 진출한 베트남 현지에서 더욱 친숙한 기업 이미지를 쌓고 사업 시너지 극대화를 기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특정 경기나 스타를 후원하는 스포츠 마케팅은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동시에 매출 증대의 효과가 있다"며 "앞으로 국내외 기업들은 스포츠 시장에 대한 투자를 더욱 늘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지원기자 pjw@

공기의 비타민, 생활의 비타민 – 에어비타

각종 세균·곰팡이·담배냄새·악취...

당황하지 말고 에어비타로 끝!

기온이 높고 습한 여름철, 식중독균 등 각종 세균과 바이러스, 곰팡이가 왕성하게 번식하게 되고
새집증후군 원인 물질, 담배 냄새, 음식 썩는 냄새 등 각종 악취가 더욱 많이 발생합니다.
에어비타는 각종 세균과 유해물질을 최고 99.9%까지 제거해주는 초소형 공기정화기 입니다.

사랑하는 분들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제일 먼저 **방방마다 에어비타** 하세요.

- 하루 24시간 내내 사용해도 월 전기료 100원 미만 (누진세 미적용시)
- 필터 교환 필요 없이 물세척만으로 사용
- 세계 26개국에 수출하는 글로벌 공기정화기

실내 공기 걱정 뚝! 유지비 걱정 끝!

강력하고 경제적인 신개념 공기정화기

에스–에어비타

크기 / 무게
170 X 90 X 48(mm) / 152g

에어비타만의 AICI 기술로 제거되는 세균과 유해물질 (시험성적서 획득)

녹농균

수퍼박테리아종 (MRSA)

대장균

살모넬라균

황색포도상구균

폐렴균

폼알데하이드

트리메탈아민 (생선비린냄새)

톨루엔

암모니아

곰팡이 (칸디다균)

이산화질소

이산화황 (아황산가스)

※위 시험성적은 시험기관의 제한된 규격에서 테스트한 결과입니다. 장소 등 여건에 따라 시험기관의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공기 지킴이 에어비타와 함께하는 "건강한 여름나기 특별 기획전"

행사기간 : 2014년 8월 18일 (월) ~ 8월 25일 (월)
본 행사 제품은 조기 품절될 수 있으니 서두르세요~

운전자 필수품! 차량용 공기정화기

카비타IIS (차량용) 1개
59,800원

USB-13 (차량용) 1개
79,000원

에스–에어비타 (가정용) 1개
~~129,000원~~ **89,000원**

에스–에어비타 (가정용) 2개
~~258,000원~~ **145,000원**

에스–에어비타 (가정용) 2개 + 카비타IIS (차량용) 1개
~~317,800원~~ **176,000원**

에스–에어비타 (가정용) 3개 + 카비타IIS (차량용) 1개
~~446,800원~~ **199,000원**

※에스–에어비타(가정용)는 화이트 / 블랙 색상 선택 가능하며, USB-13(차량용)은 레드 / 초콜릿, 카비타IIS(차량용)는 오렌지 / 다크그레이 색상 선택 가능합니다.

제품구입 / 기업 · 단체 특판 상담 : 1588-7025 www.airvita.net

'21세기의 역병' 대사증후군…홍삼이 대안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국내·외 연구 결과 잇따라 등장

잘못된 식습관과 운동부족, 스트레스 증가로 인해 '21세기 역병'으로 불리는 '대사증후군'이 급증하고 있다. 4명 중 1명이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이 증상에 홍삼이 효과적이라는 국내·외 연구 결과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어 관심을 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2년 건강검진통계연보'에 따르면 건강검진 수검자의 23.2%가 대사증후군으로, 4명 중 1명꼴로 만성적인 대사 장애를 겪고 있다.

대사증후군(Metabolic Syndrome)은 특정 질병을 일컫는 말이 아니다. 만성적인 대사 장애로 인해 비만·고혈압·고지혈증·내당능 장애 또는 당뇨병 등의 복합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일컫는다.

특히 우리나라 사망원인 2, 3위를 차지하는 심장질환과 뇌혈관질환 등의 위험을 대사증후군이 높이는 데다, 심할 경우 돌연사에 이르게 하는 만큼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대사증후군은 체내 인슐린이 작용하지 못하는 인슐린 저항성이 주요 원인 중 하나다. 비만과 운동부족으로 체지방 증가에 기인한다. 이 때문에 저칼로리·저염식의 식생활과 규칙적인 운동을 통한 적절한 체중 유지를 비롯해 금연·금주 등의 생활습관개선 노력이 필수적이다. 또 대사증후군 예방에 도움을 주는 식품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이런 가운데 홍삼이 ▲비만 개선 ▲혈당 개선 ▲심혈관질환 위험인자 개선 등에 홍삼의 효능이 밝혀지면서, 대사증후군 예방을 위한 식품으로 관심을 끌고 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이현철 교수팀이 의약식품논문집에 올해 발표한 연구 결과는 홍삼이 비만과 혈당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것을 입증했다.

연구에 의하면 홍삼은 탄수화물과 지질대사에 관여하는 'AMPK(활성화 단백질 키나아제)'라는 신호전달 효소를 활성화시켜 지방세포로부터 유리된 지방산의 산화를 촉진시킨다.

이를 통해 혈중 지질을 낮추고 에너지 대사에 관여하는 주요 인자를 증가시켜 미토콘드리아의 대사능력을 증강시켰다. 근육 세포의 혈당 수송체인 'GLUT4(glucose Transporter type 4)'의 발현을 늘려 세포 내로 당이 원활하게 유입돼 소비되도록 해 인슐린 민감도를 높여 혈당을 낮추는 작용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대사증후군 예방 작용 기전 규명과 함께 홍삼이 비만을 개선시켜주는데 효과가 있다는 사실도 추가로 밝혀졌다. 목원대학교 윤미정 교수팀은 홍삼이 지방세포 생성과 지방세포 성장에 관여하는 MMP(기질금속단백질 분해효소)의 활성을 억제해 지방조직의 무게와 지방세포의 크기와 함께 체중·체지방율을 감소시키는 것을 확인했다.

연세대학교 이종호 교수팀은 제2형 당뇨병으로 진단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12주간 홍삼을 투여한 결과 경구내당능시험(OGTT)에서 혈당, 인슐린농도, C-peptide(인슐린 전구체에 결합된 단백질로 인슐린 분비능을 측정하는 지표)가 시간대 별로 감소해 혈당이 조절돼 당뇨병환자의 공복혈당장애(IFG)와 내당능장애(IGT)를 개선하는 것을 증명했다.

/정영일기자 prms@metroseoul.co.kr

'인천AG·국제스포츠과학학회' 참여

공식 음료 포카리스웨트 스폰서 활동 소개

동아오츠카(대표 이원희)가 최근 인천 경인교육대에서 열린 '2014 인천아시안게임 국제스포츠과학학회'에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회사는 아시안게임 공식 음료인 포카리스웨트의 스폰서활동을 소개하고 아미노산의 역할 등 이온음료의 영양학적 근거를 발표했다. 또 ▲포카리스웨트 ▲소이조이 ▲에네르겐 등의 시음부스를 설치해 체험존을 운영했다.

'2014 인천아시안게임 국제스포츠과학학회'에 참여한 이진숙 동아오츠카 이사(왼쪽)와 한국영양학회 임기원 건국대 교수.

아울러 회사는 이번 아시안게임 기간 동안 스포츠인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포카리스웨트 TFT 서포터즈를 구성해 음료와 각종 스포츠용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진숙 동아오츠카 마케팅본부 이사는 "포카리스웨트는 세계인의 건강을 위해 노력한다는 기업 이념에 따라 만들어진 체액과 가장 가까운 음료"라며 "이번 인천아시안게임을 통해 포카리스웨트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포카리스웨트는 지난 1월 개최된 '제32차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총회'에서 인천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위원장 김영수)와 공식 후원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황재용기자

나트륨 50% 줄인 건강한 김치 24일 오전 서울 중구 봉래동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모델들이 나트륨 함량을 50% 줄인 '매일매일 건강한 김치'를 선보이고 있다. 매일매일 건강한 김치는 종가집이 개발한 LS공법으로 제조돼 김치의 나트륨 함량을 줄이면서도 김치의 아삭함을 살린 것이 특징이다.

/대상FNF 제공

김안과병원, 건강강좌 29일 '해피eye 눈' 열어

건양의대 김안과병원(원장 김용란)이 29일 병원 망막병원 명곡홀에서 황반변성을 주제로 '해피eye 눈 건강강좌'를 개최한다.

이태곤 김안과병원 망막병원 센터장이 강연을 맡아 황반변성의 원인과 치료·관리법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질의응답 시간도 이어진다.

황반변성은 당뇨망막병증, 녹내장과 함께 3대 실명 질환의 하나로 꼽히며 50세 이상의 노년층에서 주로 발생한다.

/황재용기자

추석 선물, "프로바이오틱스로 하세요~"

리튠, 온라인몰에서 '참 좋은 선물' 세트 기획전 진행

LG생명과학의 프리미엄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리튠(re:tune)이 민족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리튠 공식 온라인몰(www.retune.co.kr)에서 '참 좋은 선물' 추석 선물 세트 기획전을 진행한다.

기획전은 최근 인기가 높은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리튠 프로바이오틱스 듀얼'은 1캡슐당 500억 마리의 유익한 유산균을 함유하고 있으며 프로바이오틱스가 위에서 죽지 않고 장까지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도록 듀얼 코팅이 적용됐다.

또 '리튠 베네핏 프로바이오틱스'는 5종의 복합 유산균 100억 마리가 들어있는 장 건강 유산균 제품으로 요거트맛 분말 형태로 1포씩 포장돼 물 없이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하루 1캡슐로 오메가3와 비타민 7종, 미네랄 4종을 동시에 섭취할 수 있는 '오메가 트리플 액티브' 세트가 있다. 홍삼, 비타민 등 어린이에게 좋은 성분을 함유한 어린이 건강기능식품 '리튠 키즈 홍삼플러스'도 나왔다.

아울러 회사는 이 기획전 외에도 나이대별 건강에 맞춰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리튠하세요' 기획전도 운영 중이다.

한편 프로바이오틱스는 장 내 환경에 유익한 작용을 하는 살아있는 유산균을 말한다.

/황재용기자 hsoul38@

‘어깨동무 협동조합’ 호평

공동구매·업무 효율화 통해 참여 업체 1년간 매출 15% 급증

오는 설립 1주년을 맞는 두부 중소기업 연합체인 ‘어깨동무 협동조합’이 발전을 계속하며 2년 내 1600억 매출을 계획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이 조합은 롯데마트에 두부를 납품하는 우수 제조업체인 ‘한그루식품’를 비롯해 ‘동화식품’ ‘오성식품’과 콩 원물업체인 ‘두드림영농조합’ ‘강남농산’, 포장용기와 필름을 만드는 ‘세림 B&G’와 ‘부영기업’이 함께 모여 만든 협동조합이다.

설립 초기인 지난해 초 롯데마트가 ‘한그루식품’등 두부 제조업체 3개사에 연합 브랜드를 제안했고 그 해 5월 ‘어깨동무 두부’가 첫 선을 보였다.

롯데마트는 어깨동무 두부 브랜드 출시 당시부터 패키지 디자인 콘셉트 수립과 제작은 물론 중소기업들이 어려워하는 법무 검토·협동조합 설립 등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컨설팅 역할을 수행했다. 이를 통해 작년 8월 26일 어깨동무 협동조합이 간판을 내걸었다.

롯데마트 측은 “두부 제조 및 부자재 공급까지 전 생산 과정을 아우를 수 있는 기업들이 모였기 때문에 기획 생산과 원가 절감이 가능해 대기업 위주의 두부 시장에서 중소기업 두부의 세력 확대를 위한 첫 시도로 업계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고 귀띔했다.

지난 1년간 어깨동무 협동조합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 두부 제조업체의 관심도 이어졌다.

어깨동무 두부 최초 출시 당시 3개사에서, 협동조합 설립 때 7개사가 손을 잡은 후 지난 1년 사이 ‘강릉초당두부’ ‘맑은식품’등 중소 두부제조업체 3개사와 ‘2차 두부가공업체’인 ‘우리밀’(두부과자) ‘신미 C&F’(유부초밥) 2개사가 추가로 참여해 현재 총 12개사로 덩치를 키웠다.

어깨동무 협동조합 측은 “2차 두부가공업체의 참여는 두부뿐만 아니라, 이를 통한 가공품 확대로도 이어질 수 있어 새로운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발전 가도를 달리고 있는 어깨동무 협동조합의 신속하고 다양한 판로 확대는 공동구매, 기획 생산과 맞물려 실질적인 시너지 효과를 거두고 있다.

실제로 롯데마트 내에서 어깨동무 두부 출시 이전인 2012년, 전체 두부 매출 중 풀무원·CJ·대상 3개 사의 매출 구성비는 75% 가량. 중소기업 두부 매출은 25% 수준에 불과했다.

그러나 어깨동무 두부 출시 이후인 작년 5월 이후 12월까지 중소기업 두부 매출 구성비는 30.5%를 차지해 5% 이상 구성비가 올랐으며, 대기업 두부의 점유율은 2005년 이후 처음으로 70% 미만으로 떨어졌다.

특히 지난 5월까지 ‘국산 콩두부’ ‘유기농 콩두부’ ‘알찬 콩두부’ 단 3개 상품만 운영 중인 어깨동무 두부의 월별 매출이 롯데마트 전체 중소기업 두부 매출의 10~20% 가량을 차지하는 점을 감안하면 어깨동무 두부가 실질적인 중소기업 두부 매출을 견인한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결과로 어깨동무 협동조합 초기 결성 7개 업체의 작년 5월 이후 지난 1년간 매출은 약 15% 가량 수직상승했으며, 원물업체인 ‘두드림영농조합법인’과 ‘강남농산’의 콩 취급 물량도 8% 가량 늘었다.

게다가 원물과 부자재 공동구매를 통해 약 3억5000만 정도의 원가 절감 효과도 있었던것으로 파악된다.

어깨동무 두부의 납품처를 롯데마트뿐만 아니라 농협 하나로마트와 수협 바다마트, 중소형 마트로 넓히며 세력을 확장해가고 있다.

어깨동무 협동조합은 오는 27일, 충북 청주에서 협동조합 총회를 통해 현재 1180억 가량의 매출(전체 참여사 기준)을 2016년까지 1600억원으로 늘리고, 참여사도 현재 12개사에서 20여개사로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 벤치마킹 롤(Role) 모델로서의 비전을 선포할 계획이다.

이수천 어깨동무 협동조합 이사장은 “어깨동무 협동조합이 두부 시장의 중소기업 연합군으로, 대기업 브랜드의 대항마로 성공적인 안착을 했다고 평가한다”며 “두부 업종뿐만 아니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타 업종의 중소기업들에게도 벤치마킹 대상으로써 자리매김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영일기자 prms@metroseoul.co.kr

부산 찾은 에이핑크 정은지 그룹 에이핑크의 멤버 정은지가 23일 부산 중구 롯데백화점 광복점 엠리밋 매장에서 열린 팬사인회에 참석해 자신의 사인을 들어보이고 있다. /엠리밋 제공

이른 추석에 식중독 비상!

주방 위생관리 필수

예년보다 이른 추석으로 따뜻한 날씨가 예상되면서 이번 연휴기간 주방 위생관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음식이 직접 닿는 수저용품, 도마, 채반 등은 보다 깨끗하게 관리해야 한다. 특히 장기간 수저통 속에 보관돼 있던 숟가락과 젓가락은 사용 전에 식초를 이용해 간단하게 소독하면 좋다.

수저가 들어갈 수 있는 크기의 냄비에 물과 약간의 식초를 넣고 물이 끓기 시작할 때 스테인리스 숟가락을 넣고 삶으면 살균효과를 볼 수 있다. 채반이나 도마는 사용 전에 주방전용 세제로 닦은 후 말린다. 사이사이 기름때와 곰팡이가 생기기 쉬운 채반은 솔을 이용한다.

튀김·산적 등을 많이 만드는 명절에는 기름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 주방후드를 자주 사용하는데, 후드에 오염물질이 쌓이면 흡입력이 약해질 뿐 아니라 세균 증식과 악취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먼저 후드에서 필터를 분리하고 분리된 필터는 큰 용기나 싱크볼에 놓고 베이킹소다를 뿌려 세척한다. 그 위에 끓인 물을 필터가 잠길 정도로 부어주고 식초를 한 숟가락 정도 넣으면 필터를 막았던 기름때가 벗겨진다. 세탁 후에도 남아 있는 기름때는 솔이나 수세미를 이용해 닦아내고 햇빛에 말린다.

/박지원기자 pjw@

강강술래 “10만원 미만 추석선물 인기”

불황 탓 중저가 실속세트 주문 몰려

예년보다 이른 추석을 앞두고 미리 선물을 장만하려는 이들이 늘고 있다. 특히 불황 탓에 중저가의 실속있는 선물세트가 인기다.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의 한가위 선물세트 역시 전 매장과 쇼핑몰(sullaimall.com), 전화주문(080-925-9292)을 통해 최대 50% 할인 판매하는데다 지난 설보다 10만원 미만 세트 비중을 늘려 알뜰 소비자는 물론 단체주문이 크게 늘었다.

강강술래는 한우불고기1호(1kg) 5만원, 한우불고기2호(1.5kg) 7만원, 강강양념1호(16대) 9만원, 강강실속2호(강강양념8대+한우불고기1kg) 9만원 등 매장 인기메뉴를 파격할인 판매한다. 한우실속2호(한우양념2대+한우불고기1kg·13만원)와 한우정성1호(국거리+불고기+등심·각0.7kg·15만원), 한우찜갈비세트1호(3.2kg·18만원)도 특가에 구매가 능하다.

100% 한우로 우려내 맛이 진하며 상온보관이 가능한 한우사골곰탕 대용량세트(800㎖·5팩·15인분·3만8800원), 소용량세트(350㎖·5팩·10인분·2만2500원), 방부제·조미료·발색제를 넣지 않은 갈비맛쇠고기육포세트(12봉·5만7800원)도 법인 주문이 몰려 인기를 끌고 있다.

한편 쇼핑몰에서는 미국 비타민C 판매 1위 제품인 ‘솔가 에스터-C 비타민 500’을 파격가로 판매한다. 비타민 C의 산성을 중성화시켜 시지 않고 높은 흡수율과 생체이용률로 특허를 받은 제품이다. 인공 향·색소·감미료는 첨가되지 않았다.

/정혜인기자 hijung0404@

나뚜루, 신제품 출시

아이스크림 브랜드 ‘나뚜루(대표 노일식)’가 고소한 아몬드와 화이트초콜릿을 활용한 신제품 아이스크림 2종 ‘바닐라초코아몬드’와 ‘초코화이트쿠키’를 22일 선보였다.

바닐라초코아몬드는 바닐라아이스크림과 초콜릿·아몬드를 주 재료로 한 컵(Cup) 형태의 제품이다.

달콤한 바닐라 아이스크림에 진한 초콜릿 시럽, 초콜릿을 코팅한 아몬드를 더해 달콤하고 고소한 식감이 돋보이는 제품이다.

초코화이트쿠키는 화이트초콜릿으로 코팅한 바(Bar)형태의 아이스크림 제품이다.

초콜릿 시럽이 혼합된 진한 초콜릿 아이스크림을 달콤한 화이트초콜릿이 감싸고 있으며 그 위에 바삭한 화이트쿠키칩을 토핑해 부드러움과 달콤함, 크런키한 맛을 동시에 즐길 수 있다.

가격은 각각 3500원.

TGI, 100%당첨 이벤트

TGI프라이데이스(대표 노일식)가 패밀리레스토랑 최초로 도입한 ‘와규 스테이크’ 론칭 100일을 맞아 100% 당첨 경품 이벤트를 벌인다고 24일 밝혔다.

이 행사는 ‘와규 스테이크’ 론칭 100일을 기념해 주얼리 브랜드 스톤헨지와 진행하는 이벤트로 내달 21일까지 TGI 프라이데이스 전 매장에서 진행한다.

당첨이 확인된 1등에게는 주얼리 브랜드 스톤헨지 커플링(3명)을, 2등에게는 스톤헨지 14K 여성 목걸이(9명)를, 3등에게는 스톤헨지 여성 실버 목걸이(20명)를 제공한다. 또 4등 당첨자에게는 와규 서로인 스테이크 무료 식사권을 400명에게 증정한다.

이 외에도 5~7등에게는 TGI프라이데이스 전 메뉴 50%·40%·30%의 할인권을 제공하며, 재 방문시 사용 가능하다. 8등 당첨자 전원에게는 국내 최초로 물로 희석하지 않고 맥주 발효원액 100% 전통 독일식 맥주인 클라우드 맥주 1잔(425cc)을 당첨 즉시 제공한다.

"가요계 전설이 되고 싶어요"

유제혁 리토 로이 이창선 리슨

'전설'(리슨, 로이, 이창선, 리토, 유제혁)은 데뷔전부터 주목받은 그룹이다. 단순히 잘생긴 외모와 평균 신장 184cm의 훤칠한 몸매, 가창력 때문이 아니다. 국내 대형 기획사에서 오랜 연습기간을 지낸 멤버로 구성돼 여타 신인과 달리 우직함과 내공을 갖췄다. '가요계 전설을 만들겠다'는 전설의 매력을 분석해 봤다.

대형 기획사서 오랜 연습기간 보낸 전설

음악·외모·언어 다양한 매력 멤버 개인 능력으로 무장

◆ 준비된 신인 전설

전설의 멤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결코 기존 가수들에 밀리지 않았다. 음악적 능력(작사·작곡, 가창력)은 물론 영어·중국어 등 어학 능력, 비주얼, 재치있는 입담까지 그야말로 다섯 명의 영웅이 전설을 만들기 위해 뭉쳤다는 느낌을 받았다.

"2010년부터 연습을 했어요. 처음부터 모인 멤버는 아니었고 원래 각자의 팀이 있었는데 나중에 뭉치게 됐죠. 리토, 창선, 제가 비투비의 육성재 군과 같이 보컬 그룹으로 연습 중이었지만 육성재 군이 비투비로 먼저 데뷔하고 저희가 팀으로 만들어져 연습을 하기 시작했어요."(유제혁)

하지만 이들과 함께 연습생 시절을 보낸 비투비, 에이핑크, 레이디스코드 등은 현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이쯤 되면 이처럼 잘난 연습생들이 왜 일찍 데뷔하지 못했을지 궁금증이 생긴다.

"처음부터 데뷔에 대해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데뷔는 열심히 하다보면 때가 될 때 한다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천천히 보여주자는 생각이 강했죠. 남들이 먼저 한다고 우리가 못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서로 격려하면서 '우리도 더 열심히 해서 데뷔하자'는 마음으로 연습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늦게 데뷔하니깐 비투비, 포미닛 등 그룹들의 응원도 많이 받았어요. 특히 지나 누나가 조언을 많이 해줬어요. 저희 첫 방송을 보고도 개개인에게 전화해서 모니터링을 해줄 정도니까요."(유제혁)

◆ 멤버들 개인 능력?

멤버 전원이 뭉치지 않고 각자 다녀도 개개인이 전설이 되도록 열심히 준비했다고 설명하는 전설에게는 왠지모를 자신감이 묻어났다. 그렇다면 멤버들의 개인 능력이 궁금했다.

스물 한 살의 래퍼 리토는 "랩 메이킹을 하고 있어서 작사·작곡에 욕심이 있다"며 "지드래곤, 지코처럼 곡을 쓰고 싶다. 곡 작업을 하면서 랩 메이킹을 하고 현재 배우는 단계다" 고 말했다.

팀내 절대음감을 자랑하는 이창선은 "피아노 연주를 좋아해서 작곡을 하고 싶다"며 "인지도가 쌓이고 기회가 된다면 연기와 예능에 도전해 보고싶다. 사실 욕심이 많은 편이다. 예능쪽은 '정글의 법칙' '런닝맨'이 욕심난다"고 말했다.

서울예대 연기과 출신이자 팀의 맏형(리더)인 메인보컬 리슨은 "대학동기들은 현장에서 활동하는 친구들이 많다. 뮤지컬 무대는 언제나 오르고 싶다"며 "가수로서 가창력과 음악성을 보여줄 수 있는 드라마 OST에 참여하고 싶다. 물론 라디오 DJ는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인 멤버로 중국 명문대 입학을 포기하고 한국행을 선택한 로이는 "중국에서 연기를 했다. 음악 이외에 다른 것을 꼽으라면 당연히 연기"라며 "나와 제혁, 창선이 출연하는 드라마에 리토의 곡을 리슨이 부르는 날이 올까요"라며 재치있게 답했다.

영국에서 8년간 유학 생활을 하며 학창시절 육상선수로 활동한 유제혁은 "연습생 시절부터 연기 트레이닝을 받아서 연기에 대한 자신감은 있다"고 말한 뒤 "운동을 좋아해서 올 추석 '아육대'에 출전하면 확실히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전설은 그룹 god를 롤모델로 꼽으며 "개개인으로도 돋보이지만 팀으로 더 큰 시너지를 발휘하는 그룹이 되겠다"며 "제2의 어떤 그룹보다는 제1의 전설이 되고 싶다. 후배들이 생긴다면 '전설처럼 되고 싶다'고 꼽을 수 있는 그룹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양성운기자 ysw@metroseoul.co.kr·사진/김민주(라운드테이블)·디자인/최송이

전 남편의 결혼식,
하늘에서 시체가 떨어졌다!

tvN 월화드라마

마이 시크릿 호텔

my secret hotel

킬.링.로.맨.스

연출 **홍종찬** 극본 **김도현**|**김예리**

오늘 밤11시 **tvN** 방송

가족끼리 왜들 이래야 하나요?

KBS2 주말극 '불효 소송' 독특한 소재 가족애 일깨워… 생활형 대사·현실 캐릭터 공감

KBS2 주말극 '가족끼리 왜 이래'는 전형적인 가족드라마다.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부모, 남매를 둘러싼 복잡한 관계는 가족 연속극 구성을 답습한다. 그러나 '가족끼리…'는 현실적이다. 아침마다 전쟁을 치르며 출근하는 맏이, 피곤하다는 이유로 가족들의 말을 무시하는 둘째, 청년 실업자로 홀아버지의 걱정을 사고 있는 막내의 모습이 "우리 집을 옮겨 놓은 것 같다"는 공감을 얻고 있다. 불효 소송이라는 소재로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운다는 취지도 독특하다.

작품은 아버지를 조명한다. 차순봉(유동근)은 자식밖에 모르는 자상한 아버지다. 큰 소리 한 번 내지 않고 삼 남매를 홀로 키운 인물이다. 반면 문대오(김용건)는 회사 경영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을 즐기는 데 적극적인 로맨티시스트다. 서로 다른 아버지 상을 보여주며 자식들은 모르는 아버지의 고민과 애환을 그릴 예정이다.

배우들의 호연과 생활형 대사가 등장 인물의 매력을 살린다. 특히 차씨 삼 남매의 개성 있는 로맨스가 극의 재미를 더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일에 있어선 유능하지만 연애엔 무능한 맏이 차강심(김현주)과 대기업 상무지만 까칠한 노총각 문태주(김상경)의 코믹스러운 기 싸움은 작품의 몰입도를 높인다. 둘째 차강재(윤박)와 그의 파트너 권효진(손담비)은 비주얼 커플로 매력을 보인다. 셋째 차달봉(박형식)은 강서울(남지현)을 두고 윤은호(서강준)와 삼각 로맨스를 한다.

KBS2 주말극 '가족끼리 왜 이래' 유동근.

KBS2 주말극 '가족끼리 왜 이래' 박형식·남지현.

강서울에 대해선 억지 설정이라는 평가도 있다. 그는 어린 시절 차달봉과 결혼을 약속 했다. 차달봉과 달리, 순수한 이 시골 처녀는 약속만 믿고 서울로 와 차씨네에서 동거한다. "대책 없이 순수한 캐릭터가 황당하다" "나중에 신데렐라 되나요"라는 비판이 있다. 그러나 강서울은 순수하게 한 사람만 좋아하는 사람이다. 인간성보다는 돈과 배경을 우선 따지는 현대인을 위로해 줄 것이라는 의견이다.

'가족끼리…'의 반전은 차순봉의 불효청구소송 제기에서 시작된다. 자식들을 위한 부모의 희생이 의무가 되는 우리 시대에 어떤 메시지를 전할 것인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드라마의 한 관계자는 "가족은 치유고 웃음이며 눈물이다. 그래서 감동이다"며 "이 드라마는 가족이기에 당연하게 느꼈던 고마움과 미안함을 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효진기자 jeonhj89@metroseoul.co.kr

비, 아이스 버킷 챌린지 1억 기부

가수 겸 배우 비(사진)가 루게릭병 투병 중인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의 홍승성 회장을 위해 '아이스 버킷 챌린지'에 나서며 신약 개발을 위한 연구에 1억원을 기부하기로 했다.

비는 23일 큐브 엔터테인먼트 공식 유튜브 채널에 '아이스 버킷 챌린지' 영상을 공개하고 캠페인에 동참했다. 드라마 '내겐 너무 사랑스러운 그녀'의 촬영을 마친 새벽 캠페인에 동참한 비는 얼음물을 맞기 앞서 대중들에게 루게릭 병에 대한 자신의 특별한 사연을 고백했다.

비는 "아이스 버킷 캠페인에 동참하는 기분이 상당히 뜻 깊다. 나를 '비'라는 이름으로 데뷔 시켜주시고 만들어주신 제 스승이자 아버지 같은 분이 루게릭병으로 3년째 투병 중이다. 늘 어떻게 하면 도와주신 은혜와 감사함을 표현할 수 있을까 망설였다" 며 홍승성 회장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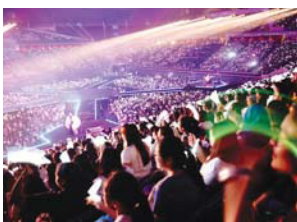
이어 "현재 국내의 모 대학병원에서 루게릭병의 신약을 개발 중에 있다. 좋은 뜻으로 기부를 하고 싶다"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으로 감싸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비는 다음 도전자로 가수 싸이, 배우 이병헌과 평소 자신을 이상형으로 밝히기도 했던 할리우드 스타 메간폭스를 지목했다.

/양성운기자 ysw@

싱가포르도 엑소 '중독'

10번째 단독 콘서트 개최

그룹 엑소(사진)가 서울, 홍콩, 대만, 중국 우한·충칭·청두·상하이·창사·시안에이어싱가포르에서도 성대한 콘서트를 개최했다.

엑소는 23일 싱가포르 인도어 스타디움에서 개최한 '엑소 프롬 엑소플래닛 #1-더 로스트 플래닛-인 싱가포르'에서 다채로운 음악과 역동적인 퍼포먼스, 화려한 무대 연출이 어우러진 공연으로 2시간여 동안 총 31곡을 선사했다.

엑소는 이날 데뷔곡 '마마'로 공연을 시작해 '중독' '으르렁' 등 히트곡 무대는 물론 '럭키' '러브, 러브, 러브' '마이 레이디' 'XOXO' 등 앨범 수록곡 무대, 멤버 개개인의 개성과 매력이 담긴 개별 무대 등 엑소만의 열정이 넘치는 무대로 현지 팬들을 매료시켰다.

이번 공연은 싱가포르에서 열린 엑소의 첫 단독 콘서트인 만큼 개최 전부터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지난 22일 오후 싱가포르 창이 공항에는 엑소의 입국 모습을 보기 위해 수 많은 인파가 운집했다. 엑소는 안전사고를 우려한 공항 측의 배려로 VIP 통로로 이동했다.

엑소는 30일 중국 광저우에서 콘서트를 이어간다.

/유순호기자 suno@

JYJ 3년 만에 베이징 콘서트

8000여 팬 환호에 중국어 노래로 화답

JYJ(사진)가 중국 대륙을 뜨겁게 달궜다.

JYJ는 23일 중국 베이징수도체육관에서 2014 JYJ 아시아 투어 '더 리턴 오브 더 킹'을 개최해 8000여 팬들과 특별한 시간을 보냈다. 2011년 월드투어 이후 3년 만에 베이징을 찾은 JYJ는 오랫동안 자신들을 기다려 준 팬들 앞에서 3시간 동안 공연을 하며 대륙에서 건재한 인기를 확인했다.

JYJ는 멤버별 솔로 무대를 포함해 총 24곡을 선보였다. 댄스곡 '크리에이션' '바보보이'를 연달아 선보이며 화려하게 공연을 시작했고, '대드 유 데어' '렛 미 씨' 등 감미로운 발라드로 관객을 사로잡았다.

이번 공연에는 JYJ가 중국 팬들을 위한 특별한 무대도 준비했다. 홍콩 가수 천이쉰의 '십년'을 중국 팬들을 위한 무대로 준비한 JYJ는 "데뷔 10주년을 맞은 우리가 중국어 노래를 들려줄 수 있게 돼 뜻깊고, 앞으로도 중국 노래를 들려줄 수 있는 기회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관객들은 공연 내내 JYJ의 노래를 한국어로 따라불렀고 말 한 마디 한 마디에 열광적으로 반응했다.

JYJ는 30일 베트남 호치민 관쿠 7 스타디움에서 아시아 투어 네 번째 공연을 개최한다.

/유순호기자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반격 개시

'인투 더 스톰' '닌자터틀' '루시' 첨단 시청각 효과로 공략

올 여름 극장가는 한국영화가 단연 강세다. '명량'과 '해적: 바다로 간 산적'이 쌍끌이 흥행으로 극장가를 점령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맞서 할리우드 블록버스터들이 볼거리와 함께 반격에 나서 주목된다.

오는 28일 개봉하는 '인투 더 스톰'은 최대풍속 초속 300m에 달하는 슈퍼 토네이도를 내세운 재난 블록버스터다. 갑작스런 기상 이변으로 발생한 토네이도가 오클라호마의 작은 마을 실버톤을 강타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렸다.

제작진은 재난 현장의 모습을 보다 리얼하게 표현하기 위해 시각효과는 물론 음향효과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자연스럽고 현실적인 사운드를 구현할 수 있는 돌비 애트모스 기술을 통해 실제 재난 현장에 있는 듯한 특별한 경험을 전할 예정이다.

영화 편집본을 먼저 감상한 제임스 카메론 감독은 "'그래비티'가 우주에서 했던 것을 '인투 더 스톰'은 기상 현상으로 해낼 것"이라고 찬사를 보냈다.

영화 '닌자터틀'.

같은 날 개봉하는 '닌자터틀'은 인기 코믹스 '닌자 거북이'의 새로운 실사판 영화. 유전자 조작 실험으로 사람처럼 변한 거북이들이 조력자인 기자 에이프릴 오닐(메간 폭스)과 함께 뉴욕을 위협하는 악당 슈레더의 음모에 맞서는 과정을 다뤘다.

이번 작품은 배우들의 연기를 디지털 신호로 전환해 CG 캐릭터를 만들어내는 모션 캡처 기술로 만화보다 더 사실적인 거북이들의 모습을 그려냈다. 설원을 무대로 한 속도감 넘치는 추격전, 고층 빌딩에서 벌어지는 아찔한 액션 등 볼거리를 내세웠다. '트랜스포머' 시리즈를 연출한 마이클 베이가 제작에 참여했다.

다음달 3일에는 뤽 베송 감독의 신작 '루시'(큰 사진)가 개봉한다. 평범하게 살던 여자 루시(스칼렛 요한슨)가 우연한 사건으로 자신의 뇌용량의 100%를 쓸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렸다. 스칼렛 요한슨, 모건 프리먼과 함께 한국의 최민식이 출연해 화제가 됐다.

'택시' '트랜스포터' '테이큰' 등 액션영화 시리즈를 제작해온 뤽 베송 감독은 '루시'에서 오랜만에 긴장감 넘치는 액션 연출을 선보였다. 진화론과 뇌 과학 등을 바탕으로 해 주제의 깊이까지 담아냈다. 루시의 능력이 극대화하는 순간을 담은 후반부의 영상미도 인상적이다.

/장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

'해적' 박스오피스 1위 올라

'명량'은 1600만 돌파

영화 '해적: 바다로 간 산적'(이하 '해적', 감독 이석훈)이 개봉 17일 만에 '명량'을 제치고 박스오피스 정상에 올라섰다.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 집계에 따르면 '해적'은 지난 22일 금요일 하루 동안 18만2505명의 관객을 동원해 '명량'의 16만5746명 관객 기록을 넘어 박스오피스 1위에 등극했다. 이어 23일에도 '명량'보다 약 6만명 많은 39만2401명의 관객을 모아 1위 자리를 지켰다.

'해적'은 당초 '군도: 민란의 시대'와 '명량'에 비해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 6일 개봉 이후 부담 없는 오락영화로 관객들에게 어필하는데 성공하며 관객을 꾸준히 모아왔다. 또한 개봉 3주차임에도 매출과 관객수가 오히려 증가하면서 뒷심을 발휘하고 있다.

한편 '명량'은 개봉 26일째인 24일 오전 8시 기준으로 누적 관객수 1605만8634명을 기록하며 신기록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흥행 기세는 다소 누그러졌으나 1700만 관객 돌파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누적 매출액은 1231억원을 기록해 '아바타'의 기록(1284억원)을 뛰어넘을 수 있을지도 관심이 모아진다.

/장병호기자

유연석 '제보자'로 스크린 첫 주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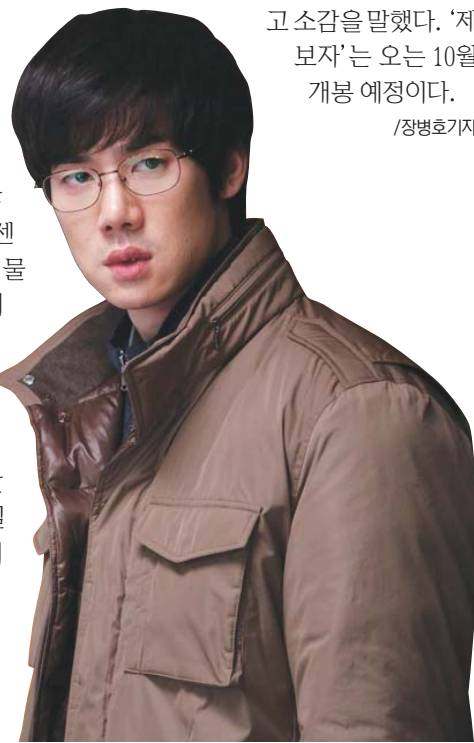
"롤모델 박해일과 연기해 행복해"

배우 유연석(사진)이 영화 '제보자'(감독 임순례)로 첫 스크린 주연에 나선다.

'제보자'는 대한민국을 뒤흔든 줄기세포 조작 스캔들의 실체를 파헤치는 영화. 유연석은 진실을 제보하는 연구팀장 심민호 역을 맡았다.

극중 심민호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제보를 했지만 보이지 않는 위협과 여론의 거센 비난으로 고뇌하는 인물이다. 유연석은 극의 리얼리티를 살리기 위해 줄기세포와 관련된 의학 분야의 전문지식을 철저하게 습득하는 노력을 쏟았다. 섬세한 눈빛과 세밀한 감정 연기로 인물의 심리를 표현했다.

특히 이번 작품에서 유연석은 선배인 박해일과 불꽃 튀는 시너지를 발휘했다. 유연석이 '제보자'를 선택한 이유도 평소 롤모델로 동경해온 박해일과 함께 연기할 수 있는 기회라는 점이었다. 그는 "박해일과 한 영화에서 같이 호흡하고 연기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고 소감을 말했다. '제보자'는 오는 10월 개봉 예정이다.

/장병호기자

홍상수·임권택·김기덕 베니스 간다

국제영화제 27일 개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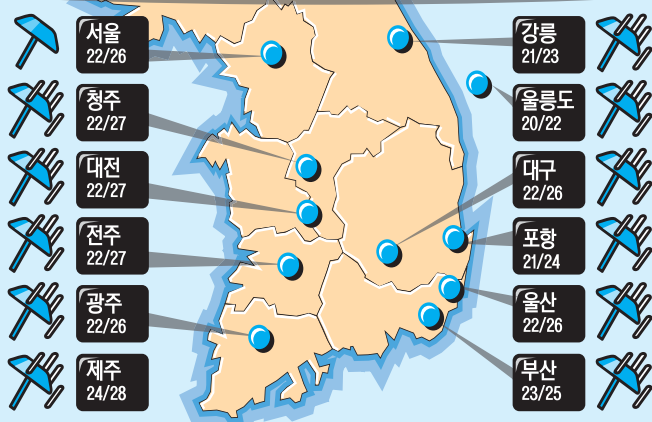
세계 3대 국제영화제 중 하나인 제71회 베니스국제영화제가 27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베니스 리도섬에서 개막한다. 올해 영화제에는 홍상수 감독의 '자유의 언덕'(사진 왼쪽), 임권택 감독의 '화장'(가운데), 김기덕 감독의 '일대일'(오른쪽)이 초청됐다.

'자유의 언덕'은 새로운 경향의 영화를 소개하는 오리종티 장편 경쟁부문에 초청됐다. 홍상수 감독과 배우 문소리, 김의성은 오는 31일 출국해 기자회견, 공식상영 등 영화제 일정들을 소화한 뒤 다음달 4일 입국할 예정이다. 올해 초청작 중 유일한 경쟁부문 진출작으로 수상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임권택 감독의 102번째 장편영화 '화장'은 오리종티 장편 비경쟁부문에 초청됐다. 임권택 감독과 배우 안성기, 김규리가 영화제를 찾으며 다음달 1일 출국해 영화제 공식 일정을 소화한다.

'일대일'은 이탈리아 영화감독협회와 제작가협회가 주관하는 영화제 비공식 섹션인 베니스 데이즈의 개막작으로 선보인다. 영화제 공식 일정에는 김기덕 감독 혼자 참석하며 이번주 초 출국할 예정이다.

한편 제71회 베니스국제영화제는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열린다. 개막작으로는 알레한드로 곤잘레스 이냐리투 감독의 '버드맨'이 선정됐다. 피터 아킨, 아벨 페라라, 라스 폰 트리에, 가브리엘 살바토레 등 거장들의 신작, 그리고 배우 제임스 프랭코의 연출 데뷔작 등이 상영된다.

/장병호기자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2			7	3		4		
1	6		8					
	4	3					9	5
			3	4				
6		1				7		9
				1	7			
8	2					9	6	
					5		7	1
		7		9	2			3

6			9			7		
	5			8				1
9		3			6	2		
	7				9			3
	2	4				6	1	
1			5				2	
		5	2			1		6
4				7			9	
		2			5			8

스도쿠 정답

2	5	8	7	3	9	4	1	6
1	6	9	8	5	4	3	2	7
7	4	3	2	6	1	8	9	5
9	7	2	3	4	6	1	5	8
6	3	1	5	2	8	7	4	9
5	8	4	9	1	7	6	3	2
8	2	5	1	7	3	9	6	4
3	9	6	4	8	5	2	7	1
4	1	7	6	9	2	5	8	3

6	8	1	9	5	2	7	3	4
2	5	7	4	8	3	9	6	1
9	4	3	7	1	6	2	8	5
8	7	6	1	2	9	4	5	3
5	2	4	8	3	7	6	1	9
1	3	9	5	6	4	8	2	7
3	9	5	2	4	8	1	7	6
4	6	8	3	7	1	5	9	2
7	1	2	6	9	5	3	4	8

문제 제공= 보누스
'멘사 스도쿠 프리미어'
(피터 고든·프랭크 롱고 지음)

컬트와인(Cult Wine)

돈은 준비됐는데 사고 싶어도 못사는 와인이 몇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미국 캘리포니아주 나파밸리에 위치한 명품 컬트와인(Cult Wine)이다.

컬트와인은 소규모의 농원에서 만들어 내는 소량의 와인이지만 품질이 워낙 뛰어난 고급 와인을 말한다. '부띠끄(Boutique) 와인'이라고도 한다. 1990년대 초에 알려지기 시작해 컬트와인이란 공식 명칭을 얻었다. 오래전부터 이어온 가족단위의 포도원 중 좋다고 소문난 와인을 '거라지(garage) 와인'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시장에 명품으로 알려지면서 얻은 별칭이었다가 현재는 보통명사가 됐다.

컬트와인은 프랑스의 보르도 스타일을 따른다. 따라서 주로 사용되는 포도 역시 카베르네 소비뇽이며 여기에 메를로나 카베르네 프랑 등을 블렌딩한다.

미국의 대표적인 컬트와인은 스트리밍 이글을 비롯해 할란, 콜긴, 아라우호, 헌드러드 에이커 등을 꼽는다. 이들은 이탈리아의 장인들이 만들어 내는 가죽과도 비유된다. 수작업을 근간으로 한 엄격한 포도재배와 양조, 품질과 유통관리 등 1년 내내 장인의 손길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1990년대 초 이들이 와인을 시장에 내 놓자 시장의 반응은 뜨거웠다. 불에 기름을 붓는 역할을 세계적인 와인 평론가 로버트 파커가 했다. 평점 100점 만점을 여러 컬트와인에 부여했던 것.

로버트 파커는 어떤 와인이든 그가 95점 이상을 주면 과거 저가품이었어도 순식간에 고급 와인으로 탈바꿈할 만큼 와인 품질 평가 부문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이다. 그는 매년 전세계 와이너리를 돌아다니며 품질을 평가해 100대 와인을 선정한다. 미국의 컬트와인은 매년 최고 점수를 유지하고 있다.

요즘은 컬트와인의 범주가 넓어지고 있다. 미국을 벗어나 스웨덴이나 이탈리아 등 여러 나라에서 컬트와인이라는 명칭을 쓴다. 이름 붙여진 컬트와인이 많아지다 보니 가격도 조금씩 착해지고 있다. 다만 개인 구매자들은 살 때 신중해야 한다. 컬트와인이라는 명칭 자체에 열광하기보다는 와인의 브랜드와 와이너리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좋겠다. /mcho@metroseoul.co.kr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당뇨에 생계도 힘들어, 방법 없을까
건강 돌보고 자기계발에 힘쓰세요

Q 행운이 가득 남자 69년 6월 16일 저녁 9시55분 경

현재 운송일 을 하고 있는데 전에는 제빵기술을 배워 작게나마 운영을 하다 IMF당시 동네에 몇 걸음 걸으면 하나씩 생겨나는 빵집 때문에 접어야했고, 다른 일도 해봤으나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내와 자식(장애인)도 건강이 좋은 편도 아니고 열심히 하려고는 하는데 안 됩니다. 빚잔치하면 남는 것도 없고 집 한 칸 없는데 막막하기만 합니다. 공장도 나이가 많아 쉬운 것도 아니고 들어가도 월150만원(보너스도 없고) 받기도 쉬운 게 아닌 것 같은데 당뇨가 있어 힘쓰는 일도 어렵고 저한테 맞는 일이 뭔지 알려주세요.

A 빵 기술 배울 때의 희망은 사라지고 운송일 시작할 때의 의지도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는군요. 가슴이 아픕니다. 살면서 기대했던 것이 물거품 될 때의 좌절감. 아픈 자식을 바라보는 안타까움, 사주구조는 술해(戌亥) 천문(天門)에 천덕귀인을 갖고 있어서 잘 베풀면서도 재물을 취하려는 요구가 강하지만 재물 운이 승발하지를 못하여 늘 아쉬운 구조입니다. 포태법상 사묘절(死墓切)의 하향길로 가면서 생일지가 백호(白虎)이니 강직하나 나름 독선적이라 타인의 간섭이나 구속을 싫어합니다. 즉 어딜 가나 융화가 잘 안되는군요. 그러나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했으니 이러한 자신의 장단점을 알고 세상 살아가는데 가릴 것과 취할 것을 잘 선택한다면 앞으로라도 대인관계가 원활하여 다소 순탄하게 풀리지 않을까요.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세상만사가 모두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원효대사의 말씀)라는 말을 유념하시고 시작이 반이라 했으니 그동안 해오던 일의 계통에서 열심히 자기 계발을 해서 내 자신의 영역을 확고히 하십시오. 당뇨에 효능이 확인된 여러 약재들이 있지만 사먹을 형편이 잘 안되니 손발을 잘 닦고 식사 후 삼시 세 때 치아를 꼭 깨끗이 닦으십시오. 돈 안들면서 도움이 되는 방법입니다. 여러 가지 심적으로 풀리는 일이 없어 고심스러워도 욱하는 감정을 자제하면서 주변과의 융화를 명심하시고, 몸을 청결히 함에 유의한다면 운은 자동적으로 바뀌어 갈 것입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역(易)의 범주에서 드리는 말씀이며 음력 9월부터 2015년 상반기까지는 더욱 재물의 어려움으로 신경이 날카로워 집니다. 힘내시고 운전에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 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8월 25일 (음 8월 1일) 김희수 인생상담 : 02)577-0541

48년생 정보는 공개하는 게 이롭다. **60년생** 주변의 의견에 귀 기울여라. **72년생** 깃발 날리며 살 수 있어 즐겁다. **84년생** 부모의 봄볕 같은 사랑에 눈물이 글썽~.

49년생 좋은 일에 초대받아 유쾌~. **61년생** 떠난 가족이 문득 그립다. **73년생** 숙제를 마친 다음에 다른 일을 생각할 것. **85년생** 새로 시작한 일은 자리 잡아간다.

50년생 어른 품격 지켜야 대접받는다. **62년생** 제 눈 들보는 안 보고 남 탓 하는 격~. **74년생** 돈 문제 방심하면 낭패 본다. **86년생** 집안 분위기가 환해져 즐겁구나.

51년생 변화보단 안전감에 치중할 것. **63년생** 제살 깎아 먹는 경쟁은 피해야 한다. **75년생** 뜻을 이루려면 자세를 낮춰라. **87년생** 자만하면 동료들 등 돌린다.

52년생 사람은 겪어 봐야 알 수 있다. **64년생** 정에 끌려 일 처리 말라. **76년생** 신변에 변화는 있으나 효과는 미미하다. **88년생** 젊다고 청춘을 방치하는 우를 범하지 말라.

53년생 자신문제는 너만의 답을 찾아라. **65년생** 금융투자는 관망하는 게 좋다. **77년생** 목마른 사람이 샘을 파는 격~. **89년생** 부질없는 시늉은 하지 않는 게 이롭다.

42년생 외출하면 눈과 입이 즐겁다. **54년생** 의미는 늘 사소한데 있음을 명심할 것. **66년생** 기다리던 소식 듣는다. **78년생** 그릇된 것 깨부수고 바른 것 드러내라.

43년생 지난 이야기로 논란 일으키지 말라. **55년생** 경기서 승기를 잡은 격이다. **67년생** 사람을 얻으려면 꿈과 신뢰 팔아라. **79년생** 명예가 올라갈 일이 생긴다.

44년생 자녀에 좋은 일이 있다. **56년생** 엉터리 정보에 속지 않도록 조심~. **68년생** 자부심을 가져도 될 경사가 생긴다. **80년생** 사소한 일이라도 진지하게 응할 것.

45년생 소외된 벗 잘 살펴라. **57년생** 귀인이 가는 길을 찾아준다. **69년생** 작업을 거는 이성을 조심할 것. **81년생** 모임에 가면 무릎을 탁 칠 정보를 얻는다.

46년생 불운한 사람은 바닥을 친다. **58년생** 사려 깊지 않는 행동 않도록 조심~. **70년생** 기득권 놔야 새 길이 열린다. **82년생** 영원한 승자도 영원한 패자도 없음을 명심~.

47년생 말이 많은 일엔 발 빼라. **59년생** 생각도 못한 좋은 자리에 초대 받는다. **71년생**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날~. **83년생** 동료와 생각 합치면 좋은 길이 열린다.

"기성용 스완지 중원의 심장"

2연승 이끌어… 손흥민·김진수도 분데스리가 팀 승리 견인

유럽파 선수들이 개막전부터 잉글랜드와 독일 리그에서 맹활약하고 있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스완지시티의 기성용(25)이 약체인 소속팀을 개막 2연승으로 이끌었다. 기성용은 23일 영국 웨일스의 리버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4-2015 프리미어리그 2라운드 번리와의 경기에서 풀타임 활약하며 1-0 승리를 도왔다.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지는 못했지만 수비형 미드필더로서 경기 내내 공수를 조율했다.

기성용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붙은 개막전에서 시즌 첫 골을 넣은데 이어 두 경기 연속 풀타임 활약하며 팀의 주축으로 입지를 굳혔다.

현지 매체인 웨일스온라인은 24일 "기성용은 지난 시즌 팀에서 외면당했으나 지금은 스완지시티 중원의 심장으로 맹활약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웨일스온라인은 "기성용은 포백 수비진의 공격 가담을 지휘했고 수비시에는 수비의 중심축 역할을 했다. 지난해보다 훨씬 안정되게 공을 다뤘다"며 "게리 몽크 감독은 지난 시즌 후반기에 선덜랜드로 임대를 갔던 기성용을 더 신뢰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기성용은 골키퍼 우카시 파비안스키에 이어 팀에서 두 번째로 높은 평점 7점을 받았다.

기성용이 23일 영국 웨일스 리버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경기에서 번리의 공격수 대니 잉스의 돌파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AP 뉴시스

손흥민(22·레버쿠젠)은 시즌 첫 정규리그 경기에서 강호 보루시아 도르트문트를 잡는데 일조했다. 손흥민은 24일 독일 도르트문트의 지그날 이두나 파크에서 열린 도르트문트와의 2014-2015 분데스리가 1라운드 원정경기에 왼쪽 측면 공격수로 선발 출전해 후반 31분까지 경기장을 누볐다.

공격포인트를 올리지는 못했지만 2-0 승리를 도왔다. 공을 잡으면 돌파를 시도하기보다 동료에게 기회를 열어주는데 주력했다.

레버쿠젠은 이날 분데스리가 역대 최단 시간 골을 기록했다. 경기 시작 7초 만에 카림 벨라라비가 세바스티안 보에니시의 패스를 받아 페널티지역 정면에서 수비수 한 명을 제치고 오른발 슈팅으로 골을 기록했다.

김진수(22·호펜하임)가 분데스리가 데뷔전에서 강렬한 인상을 남기며 풀타임 활약을 했다. 23일 독일 진스하임의 비르존 라인-니케-아레나에서 열린 1라운드 아우크스부르크와의 경기에 왼쪽 풀백으로 선발 출전해 경기 내내 그라운드를 휘저었다.

그는 전반 35분 중앙선 부근에서 로베르토 피르미노에게 패스를 찔러줬고, 이를 다시 이어받은 타리크 엘리우누시가 골로 연결시키며 팀의 두 번째 골을 합작했다. 김진수는 전반 종료 직전 왼발 중거리슛으로 상대를 위협했다.

후반 26분 프리킥 키커로 나서기도 했고, 후반에는 수비에 집중하며 팀의 2-0 승리를 지켰다.

일본 J리그 알비렉스 니가타에서 이번 시즌을 앞두고 호펜하임으로 이적한 김진수는 두 차례의 연습경기와 첫 공식 경기인 독일축구협회(DFB) 포칼 1라운드 선발 출전에 이어 네 경기에 연속으로 나서며 주전으로서 팀내 입지를 굳혔다.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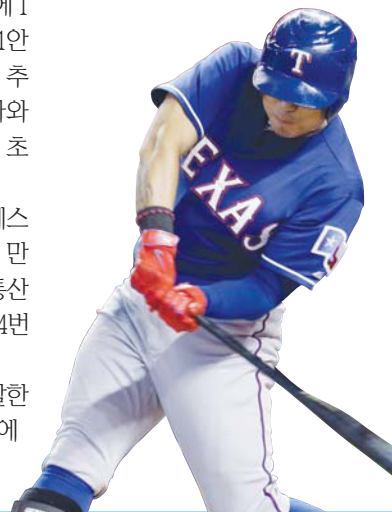
추신수 첫 타석 초구 13호 홈런

추신수(32·텍사스 레인저스·사진)가 시즌 13호 홈런을 때렸다.

추신수는 24일 미국 텍사스주 알링턴 글로브라이프 파크에서 열린 미국 프로야구 캔자스시티 로열스와의 홈 경기에 1번 지명타자로 나와 4타수 1안타 1홈런 1타점을 기록했다. 추신수는 1회말 첫 타자로 나와 상대 선발 제레미 거스리의 초구를 받아쳐 담장을 넘겼다.

추신수는 17일 로스앤젤레스 에인절스전 이후 여섯 경기 만에 홈런 맛을 봤다. 개인 통산 14번째 1회 선두 타자 홈런, 4번째 초구 홈런을 기록했다.

첫 타석을 기분 좋게 출발한 추신수는 3회 두 번째 타석에서는 삼진, 6회와 9회에는 1루수앞 땅볼로 물러나며 상승세를 잇지 못했다.

텍사스는 0-1로 뒤지다 추신수의 홈런으로 균형을 맞췄지만 불안한 마운드 탓에 3-6으로 패했다. /유순호기자

디 마리아 1000억에 맨유행

프리미어리그 역대 최고 이적료… 7번 물려받아

아르헨티나 대표팀의 공격수 앙헬 디 마리아(26·레알 마드리드·사진)가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역대 최고 이적료를 기록하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로 옮긴다.

가디언, 데일리 메일, 텔레그래프 등 영국 언론은 24일 "맨유가 레알 마드리드와 디 마리아를 이적시키는데 6000만 파운드(약 1013억원)에 합의했다"며 "디 마리아는 맨유에서 조지 베스트, 데이비드 베컴 등에 이어 등번호 7번을 달게 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파리 생제르맹(프랑스), 맨체스터 시티(잉글랜드) 등 부자 구단들도 영입 경쟁을 벌였지만 결국 맨유가 가장 거액을 제시하며 디 마리아를 차지했다. 디 마리아의 이적료는 2011년 첼시가 페르난도 토레스를 영입하면서 리버풀에 지급한 역대 최고 이적료인 5000만 파운드보다 무려 1000만 파운드나 많은 금액이다.

디 마리아는 측면 공격수와 공격형 미드필더를 모두 소화할 수 있는 멀티 플레이어다. 2008년부터 아르헨티나 대표팀에서 활약하며 A매치 52경기에서 10골을 넣었다. 2010년 남아공 월드컵과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 출전했다. 레알 마드리드에서는 4시즌 동안 124경기에서 22골을 기록했다.

레알 마드리드는 최근 브라질 월드컵 득점왕인 하메스 로드리게스(콜롬비아)를 영입하면서 디 마리아의 팀 내 입지가 좁아졌다.

/유순호기자

유소연 캐나다 퍼시픽 선두

4타차 단독 1위… 2년 만의 LPGA 우승 눈앞

유소연(24·하나금융그룹)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캐나다 퍼시픽 여자오픈에서 선두 질주를 하며 우승을 눈앞에 뒀다.

유소연은 24일 캐나다 온타리오주 런던의 런던 헌트 앤드 컨트리클럽(파72·6656야드)에서 열린 대회 3라운드에서 버디 6개에 보기 1개를 더한 5언더파 67타를 기록했다. 중간합계 20언더파 196타로 공동 2위인 최나연(27·SK텔레콤)과 아사하라 무뇨스(스페인)를 4타차로 벌리며 사흘째 선두를 지켰다.

유소연이 3라운드 17번 홀에서 버디를 기록한 뒤 미소를 짓고 있다. /AP 뉴시스

이 같은 페이스를 마지막 라운드까지 유지한다면 유소연은 2012년 제이미파 톨리도 클래식 이후 2년 만이자 통산 세 번째 LPGA 우승컵을 들어올리게 된다.

유소연은 우승과 함께 내친김에 최소타 기록에도 도전한다. 2006년 도하 아시안게임에서 29언더파를 친 적이 있는 유소연은 개인 기록과 LPGA 기록을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욕심을 드러냈다.

LPGA 4라운드 경기 최소타 기록은 2001년 스탠더드 레지스터 핑 대회(파72)에서 안니카 소렌스탐(스웨덴)이 세운 27언더파 261타다.

세계랭킹 1위 탈환을 노리는 박인비(26·KB금융그룹)는 5연속 버디를 포함해 3라운드에서 7타를 줄이며 선두에 6타 뒤진 단독 4위를 기록했다. 박인비가 이번 대회에서 우승하고 세계랭킹 1위 스테이시 루이스(미국)가 공동 2위 이하의 성적을 내면 박인비가 세계랭킹 1위에 올라선다. 루이스는 6언더파 210타로 공동 23위에 그쳤다.

대회 3연패를 노리는 뉴질랜드 교포 리디아 고(17)는 5언더파 211타로 공동 33위에 머물렀다. /유순호기자

프로축구 전적 24일

인천	0	0	제주

수원	1	1	성남

△득점 = 김태환③(후11분·성남) 산토스⑨(후17분·수원)

부산	0	1	전남

△득점 = 스테보⑥(후45분·전남)

프로야구 전적 24일

■ 잠실

N C	100	000	001	2
두산	100	000	000	1

△승 = 원종현(4승 3패 1세이브) △세 = 김진성(2승 2패 22세이브) △패 = 이용찬(4승 4패 11세이브)

■ 대구

S K	104	000	051	11
삼성	000	011	312	8

△승 = 전유수(5승3패) △패 = 백정현(3패1세이브) △홈런 = 정상호 7호(8회2점) 조동화 1호(8회1점) 박정권 20호(9회1점·이상 SK) 이승엽 27호(5회1점) 나바로 26호(7회3점) 김헌곤 2호(9회2점·이상 삼성)

■ 사직

L G	001	100	040	6
롯데	000	230	000	5

△승 = 임정우(2승5패) △세 = 봉중근(1승4패27세이브) △패 = 이정민(1패) △홈런 = 오지환 7호(3회1점·LG) 최준석 21호(4회2점·롯데)

진심을 판다 **안심**을 산다 NH 농협

"이번 추석엔 어떤 선물이 좋을까?"

Q: 건강을 챙겨드리고 싶은 할머니 댁에는?

A: 건강을 전하는 따뜻한 마음
농협홍삼 한삼인

Q: 아이들 무럭무럭 자라는 동생네 집에는?

A: 100% 우리고기
농협목우촌

Q: 존경을 전하고 싶은 팀장님 댁에는?

A: 고품격 친환경 농산물
농협 아침마루

Q: 언제나 고마운 거래처에는?

A: 우리 몸에 딱 맞는, 매일 만나 더욱 맛난
농협 뜨라네

Q: 더 많이 챙겨드리고 싶은 부모님께는?

A: 쓸수록 가치있는
농촌사랑상품권

Q: 늘 힘이 되는 후배 감대리에게는?

A: 우리 농산물로 만든 가공식품
농협 아름찬

추석에는 농협선물세트를 추천합니다

농협 하나로마트 농협 a market 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www.nhamarket.com

농협 하나로마트클럽 문의처 : 양재 02)3498-1105~9 창동 02)3499-6000 목동 02)6678-9650 용산 02)2077-2800 성내 02)2224-8971 상계 02)937-0291 용인 031)289-0600 고양 031)910-9100 파주 031)943-9595 성남 031)738-9000 수원 031)299-9000 신촌 02)2131-1000 서대문 02)2080-6993 인천 032)500-9000 대전 042)580-5000 오룡 042)537-6000 청주 043)290-0114 봉명 043)262-3355 분평 043)284-0070 산남 043)292-4500 율량 043)241-7500 광주 062)650-0001 남악 061)289-7700 목포 061)280-6000 전주 063)210-4545 군위 054)380-5500 김해 055)310-7000 창원 055)265-8088 남양 055)279-8122 반림 055)275-4437 사파 055)283-0455 울산 052)210-8800 옥동 052)228-8900 달성 053)607-2000 대구 053)355-6311 성서 053)521-5100 포항 054)230-8000 부산 051)330-9000 부전 051)801-9000 자갈치 051)250-7700 용호 051)621-3200 주례 051)325-8585 **농협한삼인 문의처** : 080-346-3434 **농협목우촌 문의처** : 1544-0092 **아름찬 문의처** : 080-399-9988 **농촌사랑상품권 구입안내** : nhgift.nonghyup.com

전국 2000여개 농축협 하나로마트에서도 농협선물세트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